



“총지종 제68회 추계강공회”

종단 중흥 정책, 교화 활성화 논의



◇전국 스승들이 참석하여 종단정책을 논의하고 있다.

총지종(총리원장 우승)은 10월 17일부터 21일까지 서울 통리원에서 전국의 스승과 종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68회 추계강공회를 개최한다.

추계강공회 기간에는 총기 35년도 추경예산과 내년도 예산을 심의 결

의하고, 종단 중흥의 정책 대안 마련, 불사에게 정비, 종단의 현황과 발전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추계 강공회는 원의회, 사회 복지 재단 이사회, 중앙 종의회, 승단총회를 개최하여 종단의 중요정책을 심의, 결의하며, 교화 활성화 방

안, 종단의 정책 결정 등 종단운영의 주요 안건을 심의하고 결의한다.

추계강공회에 즈음하여 우승 총리원장은 “종단은 혼자의 힘으로 운영될 수 없습니다. 모든 스승님과 교도들의 단합된 모습과 건전한 정책 대안, 시대변화에 적합한 교화방편

마련이 있을 때 종단발전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총지종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신비한 밀법을 수행하는 진언행자로서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부처님의 깨달음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불철주야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지

종의 진언 밀법을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번 추계강공회를 계기로 밀법을 널리 홍보하는 발전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실행안을 마련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밀법을 널리 알리도록 써 고통받는 중생들을 제도하는데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화합된 모습과 종단 중흥을 위해 승단과 교도들은 다양하고 건전한 안건들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연꽃 구경 오세요”

영천 단음사 연꽃 한마당

“연노랑 꽃수레에 가느다란 물방개 날아들고, 하얀 나비 연꽃수레 홀로 앉아 유유자적하고, 물속 푸른 연잎위에 부끄러운 연꽃 새색시가 얼굴 붉히네.”

총지종 영천 단음사(주교 안성) 정원에는 아름다운 연꽃이 만발하여 가는 나그네들의 발길을 멈추게 한다.

단음사 주교 안성 정사는 “연꽃은 더러운 연못에 뿌리를 내리고 있더라도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그 열약한 환경을 영양분 삼아 청아한 연꽃을 피워 그윽한 향으로 주변을 맑고 향기롭게 하는 연꽃처럼 불자들도 자신이 살아가는 주위 환경이 아무리 나쁘더라도 거기에 매몰되거나 굴복하지 않고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개선하고 변화시키며

사는 삶을 살아가고 교도와 주변 사람들이 연꽃을 보며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가지기 바라는 마음에서 재배하기 시작 하였다.”고 한다.

단음사는 올해 처음으로 20여개의 통에 연꽃을 재배하여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었으며, 앞으로 단음사 경내에는 사시사철 푸른 꽃과 화분으로 단장하여 교도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의 안식처를 제공할 예정이다.

단음사 주교 안성 정사는 “조그마한 화생과, 봉사가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하며, 항상 남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부처님처럼 아름다운 꽃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에 미소와 웃음이 가득한 날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단음사 정원에 핀 수련.

“화합과 단결로 종단중흥 새 역사 창조”

제26주기 종조 멸도절 추선불사

제26주기 원정 종조 멸도절 추선 불사가 지난 9월 8일 원정기념관과 전국사원에서 효강 종령예하를 비롯하여 스승과 교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이날 행사는 개식사, 훈향정공, 무상계독송, 천수경독송, 반야심경, 폐식사, 종령법어 순으로 진행됐다.

효강 종령예하는 법어를 통해 “원정 대성사님은 총지종을 창종하시고, 한국에 정통밀교를 개원하셨습니다. 총지종이 창종되면서 전국에서는 그동안 밀법에 묵발하던 많

은 중생들이 진언의 만다라 세상에서 소원성취와 병고해탈을 이루어 교세는 불길처럼 타올랐습니다.

우리는 오늘 원정 대성사님의 멸도절을 맞이하여 예전의 발심과 신심으로 제2차종의 중흥을 맞이해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종단은 중흥의 역사를 개척하기 위해 종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종단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조만간 종단특별위원회에서 연구한 업적들이 속속 발표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종단 중흥은 혼자의 힘만으로 이

룩되는 것이 아닙니다. 새가 양 날개를 펼치며 날듯이 승단과 교도들의 화합과 단합된 모습으로 한 마음이 되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종단 발전을 위해 소이를 버리고 대아적인 자세로 시기와 질투의 시각을 버리고 서로 서로 위로하고 도와주는 자비심으로 일심단결하여 종단 중흥을 이룩해야 합니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의 지방사원은 각 사원별로 서원당에서 스승과 교도들이 동참한 가운데 제26주기 종조 멸도절 추선불사를 봉행했다.

총지캠페인

노름

기원전 3세기 이전에 설립된 불교의 초기 경전인 육방예경에 도박의 악영향에 대해 부처님께서 설(說)하는 모습이 나온다. 또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자 주위의 로마 병사들은 예수의 옷을 서로 가지기 위해 주사위를 굴러 도박했다고 성경은 적고 있다. 경주의 안압지에서 도박용 주사위가 출토되었다.

가까운 근세에도 조선의 실용주의 학자 정약옹은 ‘목민심서’에서 지방관들이 도박에 탐닉하는 것을 경계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요즈음에 쌍륙, 투전(鬪錢), 골패(骨牌), 척사(擲柶)(우리나라 풍속의 윷놀이)같은 도박이 전국에 퍼져 있는데 이러한 노름을 하는 자는 대명률에 의해 모두 장(杖) 80에 처해야 하며 특히 도박장을 개설하고 방값(房價) ‘기름값(油價) ‘밥값(飲食價) 등의 명목을 두어 자릿세를 뜯거나 고리로 노름 돈을 빌려주며 도박장을 설치하고 노름 관을 주관한 자는 형률에는 비록 죄가 같을 지라도 이는 원흉이니 그 벌이 마땅히 배가 무거워야 한다.”

그 후 300년 이 지난 지금 사행성 도박게임 바다가야기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다. 도박은 이처럼 인간의 역사와 같이 존재해왔으며 앞으로도 절대 떨어질 수 없음을 보여준다.

도박의 순수 우리말 ‘노름’의 어원은 ‘놀이’에서 나왔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노름이 놀이에서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놀이는 인간의 본능적 욕구에 가깝다. 즉 노름은 인간의 본능적인 쾌락을 주는 놀이인 것이다.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PC를 이용한 각종 도박게임 등 같이 합법을 앞세우고 이런 사업에서 나오는 이익금으로 도박방지를 위한 각종 제도나 프로그램을 만들고 도박 중독자들을 위한 사업을 펼치겠다고 도박관련 사업자들은 말하고 있다. 이는 전쟁을 일으켜 무기를 팔아 생긴 이익금으로 전쟁 피해자를 위해 쓰겠다고 하는 어처구니없는 생각과 같다. 이유를 불문하고 바다가야기 같은 도박 게임은 정당화 될 수 없으며 이 사회에서 없어져야 할 암적 존재다.

이 달의 종조법설

어버이는 허물의 근본이 되고, 아들, 딸과 며느리는 허물의 결과가 되는 것이니, 자식들의 허물이 나로 인연한 것이라. 인이 없으면 과가 없는 것이니, 내가 부모에게 지은 허물을 뉘우치는데 효수하지 않는 자녀들의 허물이 없어지고 내가 시어머니에게 지은 허물을 깨쳐서 참회하는데 며느리의 큰 허물이 없어지는 것이니라



제68회 추계강공회

금강같은 정진, 교화 혁신과 종단 발전...

종조 원정 대성사님께서 홍포한 밀교의 주옥같은 진언, 정확한 인계, 엄격한 의례와 사중수법으로 교화와 포교발전을 함께 고민하고 도모하고자 추계강공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전국 스승님들께서는 수회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총기35년 10월 17일(화)~10월 21일(토)
- 장소 : 불교총지종 통리원
- 대상 : 종단산하 전 스승님



불교총지종 통리원장 우 승



사 설

종교,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자

“요즘 유럽과 미국에선 불교가 트렌드잖아요. 함께 참여하는 외국인 친구들도 대개 서구에서 책을 통해 불교에 대해 알게 된 뒤 직접 경험해보고 싶어 템플 스테이를 하고 있어요.”

주 5일 근무제는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전통사찰에서는 내방객이나 신도들을 배가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이 전개되고 있다. 주말을 이용한 사찰체험이나 문화답사 등의 프로그램으로 신도 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인들을 끌어 들이고 있다.

2002년부터 불교계에서 실시했던 ‘템플 스테이’는 갈수록 시민들에게 호응을 받으며 성장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불교와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일반인들에게는 새벽예불과 함께 발우공양, 율령 등 사찰 생활을 직접 경험해보는 유익한 시간들이 되고 있다. 도시인들에게 산사의 여름수련법회는 인기 만점의 여름휴가이기도 하다.

최근 템플 스테이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면서 종교, 나이와 상관없이 사찰이나 예배당, 수도원 등 종교 공간을 찾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다. 사찰이나 수도원들도 템플 스테이를 강화하고 색다른 이벤트와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해 차별화에 나서려는 추세다.

종교가 대중 속으로 다가서려는 노력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불교의 포교나 기독교의 선교 활동은 사찰이나 예배당의 가장 원래적인 소임이기도 하다. 그러나 최근 종교 공간에 대한 관심은 종교계의 선교 활동이나 사회 참여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신적 체험을 원하는 비신자들이 개인적이고 능동적으로 종교 공간을 찾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신앙보다는 일종의 ‘문화 레저’의 성격이 강할 수밖에 없다.

최근 종교 공간의 새로운 활용을 주도하는 것은 템플 스테이 시행하는 사찰들이다. 사찰들은 접근하기 어려운 산 속에 위치한 탓에 템플 스테이가 다른 종교의 공간 활용보다 두드러져 보이기도 하지만, 통계 숫자는 템플 스테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입증한다. 원래 월드컵을 앞두고 외국 관광객들의 숙소 보완 차원에서 2002년 처음 시작한 템플 스테이는 첫째 외국인만 3,300명이 참가했는데 2004년에 외국인 3,000명, 내국인 2만4,000명이 참여했고, 올해는 7만여 명이 사찰을 찾았다.

가톨릭에서도 신자들의 ‘피정’에 비신자인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일종의 ‘템플 스테이’ 프로그램 시행을 시도하고 있으나 템플 스테이만큼 활성화되진 않았지만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전국에 있는 140여개 수도원에서 비신자들도 미사와 노동을 체험하고, 일부 피정센터를 가진 수도원에서 소규모로 개인 피정을 시행하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각종 수련회와 선방 운영, 당일 체험 프로그램과 문화 이벤트로 명성을 높인 종교 공간이 늘어나고 있다.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이나 종교체험의 콘텐츠 개발은 우리 종단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 개인의 욕구나 취향은 더욱 다양해졌고 종교를 찾는 이유도 천차만별이다. 이제 우리는 그러한 종교적 욕구와 문화적 충족을 마련하는 데 눈을 돌려야 한다.

구태의연한 모습으로는 교화에 큰 발전을 가져 올 수 없다. 또한 실험적 교화방편을 도입해나갈 필요가 있다. 일부 사원을 문화공간으로 특화하여 지역주민에게 다양하고 새로운 문화공간을 제공함으로써 포교의 활성화를 시도해야 한다.

“시대변화에 부응한 인재양성”

총지종, 종립 동해중 제39회 개교기념식



◇총지종 우승 통리원장 불교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총지종 종립 동해중학교(교장 박수현)는 지난 9월 22일 본교 운동장에서 제39회 개교기념식을 거행하였다.

우승 총지종 통리원장, 의강 동해중 이사장, 동해중 동문회장,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는 개식사를 시작으로 장기근속자 수상, 총지종 장학금전달, 의강 이사장축사, 우승 통리원장 축사, 학교장 축사, 동문회장 축사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성적이 우수하고, 신심이 돈독한 불교반 학생들에게 총지종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우승 통리원장은 축사에서 “입시위주의 교육환경에서 학생들은 ‘사람의 도리’를 지키고 바른 가치관을 가진 ‘참된 인간’으로 성장하기를 기원하며, 부처님께 ‘법에 의지하고, 자신에 의지하라’고 말할듯이 우리는 마음을 고요히 평화롭게 유지하여 행복해 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강 동해중 이사장은 축사에서 “우리 동해중학교는 불교 총지종에서 유지경영하고 있는 종합학교로서, 종조이신 원정대성 사님의 건학이념에 따라 ‘불법을 생활화하고,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정신과 인격을 도야하며, 국가 사회에 기여하는 인재양성

합’을 학교설립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종조님의 건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 동해중학교는 동래지역에서, 나아가서는 부산시내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여 타 학교의 부러움을 사는 학교로 발전하여야 합니다”고 말했다.

박수현 동해중 교장은 기념사를 통해 “국제화, 정보화시대로 대변되는 현대 사회는 무한 경쟁을 요구합니다. 이 시대는 우리를 지금의 성과에 만족하고 안주하게 그냥 내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 요구에 부응하고 나아가 국가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인재를 키워내기 위해서는 더 나은 교육환경과 여건을 조성하고 여러 사람의 지혜와 슬기를 한데 모아서 더욱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학생 여러분도 사회에 진출하여 눈부신 활약을 펼치고 있는 선배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선배를 못지 않는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알림

- 밀시야 법정정사 장녀 구나영양의 결혼식이 지난 9월 23일 부산 금정구민회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 제88회 추계감공회가 10월 17일부터 21일까지 봉행됩니다.
- 제9차 한·중·일 불교교류대회가 10월 25일부터 28일까지 일본 교토에서 봉행됩니다.

“마음과 마음 이어주는 불심”

총지사, 강화도 전통사찰 방문 단합대회



◇총지사 교도들이 전등사 대웅전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총지사(주교 선도원)는 지난 9월 21일 강화도 보문사, 정수사, 전등사를 방문하며 진행된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총지사가 전통사찰 방문을 통한 단합대회를 개최한 것은 불심으로 교도들간의 친목도모와 화합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총지사에서는 그동안 자성일마다 많은 교도들이 법회를 봉행하지만 법회가 끝나자마자 가정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서로간의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 80세가 넘는 한 노보살은 “젊은 층과 함께 만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뜻깊은 자리였으며, 이번 대회를 주최하기 위해 고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합대회를 주관했던 총지사 김은숙 신정회 회장은 “사막해져 가는 현실속에서 부처님의 법을 만나 삶의 가치와 의미를 느끼게 되었다”며 “부처님의 제자로서 부처님의 법을 공부하는 도반들간의 지중한 인연공덕으로 이러한 뜻깊은 행사를 개최하게 되어 감회가 무량하다”며 “도반들끼리 서로 서로 상부상조하는 아름다운 행을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불제자이기에 이러한 행사를 자주 봉행함으로써 총지사의 발전을 기하고, 불국토가 이루어 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세상사는 이야기

마치 소풍이라도 가듯이 우리 일행들은 들뜬 마음으로 청량리에서 출전행 기차에 몸을 실었다. 꼭 일주일만에 다시 찾아가는 길이다. 8월 29일에 봉행된 윤희순 의사님 추모제 중 하나인 현대례에 초청받아 가는 길이다.

여기서 잠깐 윤희순 의사님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들은 독립운동하면 먼저 ‘유관순’님을 떠올린다. 윤희순 의사님은 구한말과 일제강점기에 국가와 민족을 위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항일투쟁과 구국운동에 앞장서신 분이시다.

여성의 몸으로 가부장적 시대에 의병대장을 지냈으며, 국모 시해사건이 일어나자 나라를 지키는 일에 남성, 여성의 구분이 있을 수 있느냐?면서 ‘안사람 의병가’, ‘병정가’ 등 수많은 노래를 지어 부

르게 하여 여성들로 하여금 구국운동에 적극 나서게 했다.

을사조약 체결로 조국에서 항일투쟁이 어렵게 되자 온 가족이 중국으로 건너가 계속 독립투쟁을 하였다. ‘노학당’이라는 학교를 설립해서 인재를 길러냈고, ‘조국독립당’을 조직해서 투쟁하던 중 독립운동을 하시던 시아버님과 남편이 돌아가시고 아들마저 왜군에게 잡혀가 갖은 고초

여성 의병대장 ‘윤희순 의사’ 현대례에 참석하며

를 겪다가 죽자 상심하여 쓰러지고 난 후 11일만에 돌아가셨는데 그 때가 향년 76세였다.

강원도 옥수수를 먹고 싶었지만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 택시를 타고 광복회 춘천지부장님을 만나러 사무실로 찾아가셨다.

‘광복운동을 하신 후손들의 사무실이 이렇게 초라하더니...!’

지부장님은 윤희순 의사님의 단 한 분 남으신 친손자이시다. 우리들이 인터뷰하는 동안 좋은 말씀과 함께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구국 사랑하는데도 점심으로 ‘박국수’를 사 주셔서 춘천의 인심과 맛을 느낄 수 있었다.

현대례 의식은 장소를 옮겨 윤희순 의사님 동상 앞에서 진행되었다. 주최측인 춘천 예림회에서는 우리들을 반갑게 맞이

하여 주었으며, 현대례 의식에서 차를 봉양할 수 있는 기회까지 주었다.

차를 봉양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가슴이 벅차 오르고 한편으로는 숙연해졌다.

윤희순 의사님은 온 가족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항일운동과 구국운동을 하셨는데 지금의 현실은 어떤가? 신문 보도에 의하면 ‘한국, 일

본, 중국, 미국의 젊은이들에게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국가를 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인가?’라는 설문조사에서 한국의 젊은이들이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고 한다.

앞으로 국가의 장래를 짚어지고 나갈 젊은이들의 이런 결과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걱정부터 앞선다. 하지만 실제로 국가가 어려운 일이 닥치면 우리 젊은이들은 누구보다 앞장서서 극복하리라 믿는다. 나도 아주 작은 일이나마 국가를 위한 일에 무엇인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돌아오는 길에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속에는 묘한 뿌듯함을 안고 서울행 기차를 탔다.

차창밖에는 이미 어둠이 서서히 드리우고 있었다. 물안개가 피어오르는 강을 끼고 산들도 하나 둘 어둡속으로 사라진다. 오늘은 아주 긴 하루였다.

우리 모두 부처님의 참사랑을 어려운 이웃과 나눴어요

2006년 8월 27일부터 2006년 9월 26일까지

개천사 이희권 8.31 10,000	단음사 박호열 9.19 10,000	밀인사 신동의 9.19 5,000	실지사 정경자 8.28 5,000	정각사 구정희 9.21 20,000
개천사 무명씨 9. 8 5,000	단음사 박주열 9.19 10,000	밀인사 이연수 9.26 10,000	실지사 박병성 8.28 5,000	정각사 문광순 9.26 120,000
관성사 황성녀 8.28 10,000	단향사 공철봉 9. 5 10,000	백월사 유승태 9.13 10,000	실지사 이경환 9.21 5,000	정심사 박옥란 9.13 20,000
관성사 현정원 8.31 20,000	덕화사 김상열 9.12 20,000	백월사 황혜숙 9. 20 10,000	실지사 이슬기 9.21 5,000	정심사 오윤보 9.22 5,000
관성사 김병역 8.31 10,000	만보사 지 성 8.29 10,000	법황사 정해심 8.31 20,000	실지사 이창환 9.21 5,000	총지사 김은숙 9.11 100,000
기로원 상지화 9.26 10,000	만보사 승효계 8.29 10,000	법황사 진용남 9.22 30,000	실지사 이남승 9.21 5,000	총지사 이인성 9.13 30,000
기로원 불멸심 9.26 10,000	만보사 정덕순 8.31 5,000	삼밀사 원 송 8. 31 10,000	운천사 박보경 9.15 10,000	통리원 지 정 9.26 20,000
기로원 법장화 9.26 10,000	만보사 정덕순 9. 5 5,000	삼밀사 김주희 8.31 40,000	운천사 김숙련 9.19 20,000	해정사 박종석 9. 7 20,000
기로원 대자행 9.26 10,000	만보사 정덕순 9.11 5,000	삼밀사 김희자 9.13 20,000	정각사 황영숙 8.29 10,000	해정사 혜원정 9.15 20,000
기로원 대 관 9.26 10,000	만보사 배정임 9.13 10,000	삼밀사 김주희 9.13 20,000	정각사 윤선자 8.31 10,000	해정사 오혜민 9.15 10,000
기로원 수중원 9.26 10,000	만보사 민순분 9.22 10,000	선립사 정복지 9.18 10,000	정각사 신옥필 9. 1 5,000	화음사 박지홍 9.11 10,000
기로원 자선화 9.26 10,000	밀인사 이재호 8.29 10,000	선립사 이순복 9.22 10,000	정각사 남숙자 9. 4 20,000	화음사 박지용 9.11 10,000
단음사 박주열 8. 30 10,000	밀인사 정정희 8. 30 5,000	수인사 김봉기 8.29 10,000	정각사 혜정심 9.11 5,000	정희연 8.28 10,000
단음사 안 성 8. 30 10,000	밀인사 신대식 9.19 5,000	실보사 이문옥 9. 4 5,000	정각사 임지운 9.11 30,000	
단음사 유가해 8. 30 10,000	밀인사 이혜성 9.19 5,000	실보사 안경숙 9.22 5,000	정각사 이란이 9.15 10,000	
단음사 이규성 9.14 10,000	밀인사 신동희 9.19 5,000	실보사 송희준 9.25 10,000	정각사 박훈취 9. 20 10,000	

후원회 가입안내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의 복지사업에 소중한 기여입니다.

후원금 납부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원명, 통신란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금주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종 사회복지 재단
전화 552-1083, 3452-7485

풍경소리

나 스스로 좋은 벗이 되어야



경전에서는, 땅이나 산과 같은 벗은 좋은 친구이고 꽃이나 저울 같은 벗은 나쁜 친구라고 합니다. 땅 같은 산 같은 벗이란 대지가 온갖 곡식과 열매를 기르듯 항상 도움되는 일을 권장하는 친구이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변함없는 벗을 말합니다. 꽃 같은 저울같은 벗이란 꽃이 피었다가 지듯이 저울이 무거우면 내려가고 가벼우면 올라가듯이 부귀나 권세가 있을 때에는 가깝게 사귀다가도 가난하고 비천해지면 금방 돌아서는 친구를 말합니다.

우리는 좋은 친구와 사귀어야 하지만, 동시에 나 스스로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 박경준(동국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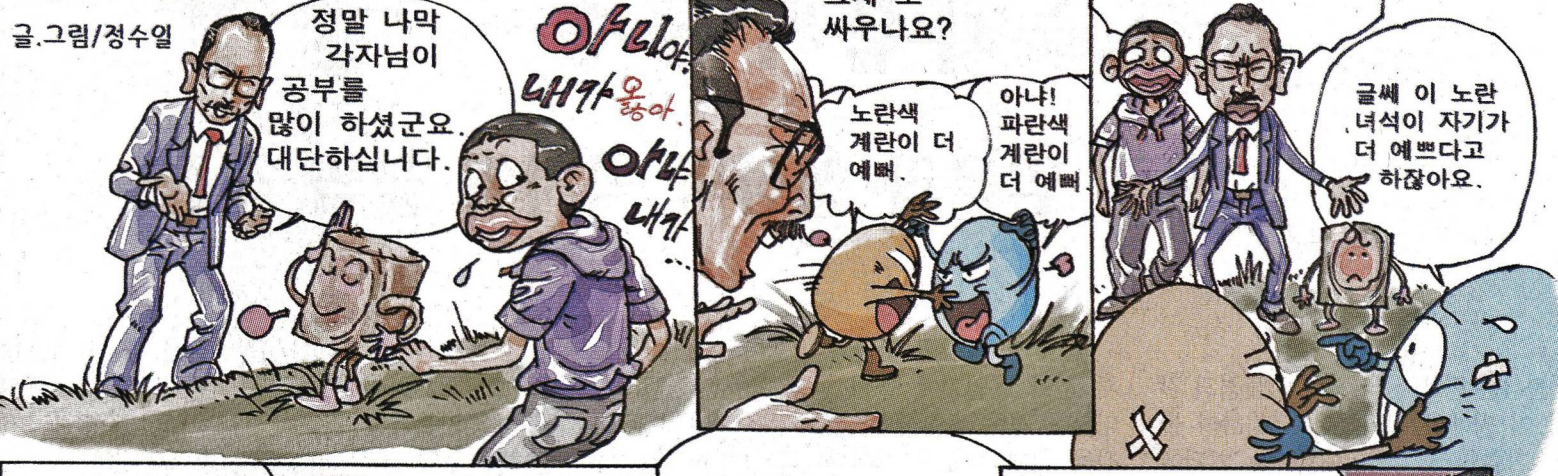
그 곳에서 벗어나야지



신찬대사가 책을 읽고 있는데 벌 한 마리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방으로 들어온 벌은 나가려고 애썼지만 창호문에 부딪히기만 했습니다. 대사가 이를 보고 말하였습니다. "세계가 이처럼 넓은데 나가지 못하고 창호 문만을 두드려니 언제나 나가려나." 열린 마음으로 보면 온 세상이 출구요, 내 삶의 터전이 될 수 있습니다. 넓은 세상을 꿈꾸면서 출구를 찾지 못해 한 자리에서 뱅뱅 맴돌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 문운정(수필가)

원정대성사와 함께 하는 VISUAL믹고



정수일홈피-http://home.paran.com/octagonp

- 1) 무상심심미묘법 (無上甚心微妙法)
2) 백천만겁난조주 (百千萬劫難遭遇)
3) 아금문견득수지 (我今聞見得受持)
4) 원해어래진실의 (願解如來真實意)

그런 구체적인 뜻을 알아 볼까요?
마침 바다 한 가운데 구멍 뚫린 통나무가 있어 거북이가 편히 숨을 쉬며 쉴 수가 있었다는 일화인데 얼마나 희귀한 확률이었어요? 그만큼 부처님 법을 만나기가 어렵다는 말이겠지요.

그 다음.. "아금문견득수지" 라는 뜻은 그만큼 만나기 어려운 불법의 인연을 지금 내가 듣고 보고 얻어 지녔다 라는 말씀입니다.

첫 구절인 "무상심심미묘법"을 살펴보면 부처님 법은 가장 깊고 높고 미묘해서 그이상 훌륭한 것이 없다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백천만겁난조주"라는 구절은 부처님 법은 헤아릴 수 없는 오랜 세월을 겪어도 만나기 어렵고 귀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얘기를 하나 하자면, 깊은 바다 속에 사는 눈먼 거북이가 100년 만에 한 번 숨을 쉬기 위해 물위로 떠오르는데...

그 다음 "원해어래진실의"의 뜻은 원한근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잘 알게 해달라 라는 뜻입니다. 음마니반메흠~!

마지막 구절인 "원해어래진실의"의 뜻은 원한근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잘 알게 해달라 라는 뜻입니다. 음마니반메흠~!

이달의 명상

재주가 많더라도, 솔직하지 못한 잔재주는 부리지 말라. 솔직하지 못한 잔재주는 인정받기를 거부하는 것이요 결국 자신이 지니고 있는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남의 착한 일은 나타내주고 남의 허물은 숨겨주며 남이 부끄러워 할 것은 말하지 말라. 어질고 착한일을 시기 질투하는 것은 가장 추한 시기심인 것이다.

무소유

공든 탑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선(善)은 끝은 있어도 악(惡)은 끝은 없다. 제아무리 뛰어난 솜씨와 언변을 지녔어도 참 모습 자체를 설명하지는 못한다.

외형이나 자태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요 사람의 됨됨이나 진실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현명한 것이다.

유리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불리하다고 비굴하지 말라. 자기가 아는 대로 진실을 말하며 주고받는 말마다 악(惡)을 막아

듣는 이에게 편함과 기쁨을 주어야 지나치게 인색하지 말고 성내거나 미워하지 말라. 무엇을 들었다고 쉽게 행동하지 말고, 그것이 사실인지 깊이 생각하여 이치가 명확할 때 과감히 행동하라.

이기심을 채우고자 정의의 등지지 말고, 원망을 원망으로 갚지 말라. 위험에 직면하여 두려워 말고, 이익을 위해 남을 모함하지 말라.

객기를 부려 만용하지 말고, 허약하여 비겁하지 말라. 사나우면 남들이 꺼려하고, 나약하면 남이 업신여기거나 사나움과 나약함을 버려 지혜롭게 중도를 지켜라.

태산 같은 자부심을 갖고, 누운 풀처럼 자기를 낮추어라. 역경을 참아 이겨내고 형편이 잘 풀릴 때를 조심하라. 재물을 오물처럼 볼 줄도 알고, 터지는 분노를 잘 다스려라.

불교 총지중 사회복지 재단은 부처님의 자비로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설립취지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사회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각종 사회복지 사업을 펼치고 이를 통해 소외된 계층과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의 공덕을 실천하여 안정된 사회와 가정 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자 설립되었다.

주요사업내용

청소년복지사업

- 건강한 청소년 육성사업
- 청소년 문제 연구 및 상담사업
- 청소년 문화교실 운영
- 청소년 건강 프로그램 개발
- 청소년 캠프

지역복지사업

- 지역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사업
- 지역내 소년·소녀 가장 후원 결연사업
- 지역내 독거 노인 후원 결연사업
- 생활보호 대상자 후원 사업



자원봉사 및 후원회 사업

- 자원봉사자 상담 및 교육
- 자원봉사 지원 및 운영
- 후원자 개발 및 관리
- 자원봉사 교실 운영



노인 휴양시설 건립 추진

- 아름다운 노후생활
- 안정되고 체계적인 노후보장
- 남골당 건립 추진

후원회 가입안내.....

불교 총지중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 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과 더불어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의 사회 복지 사업에 소중한 기여가 됩니다.

회 원

- 일반회원 - 월 5천원(1구좌) 이상
친조회원 - 일정금액 후원
단체회원 - 단체명의로 월 5만원 이상
특별회원 - 50만원 이상 후원

후원금 납입방법

-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 하 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 이체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지로 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 금 주 : 불교총지중사회복지재단

민국불교미술

불교가람의 주종 - 불상

오랜 믿음과 정성의 역사와 삶의 산실

불상은 먼저 삼국 시대에 불경과 같이 이 땅에 전달되었다. 그리하여 불교 가람의 중심을 차지하는 법당에 안치됨으로써 사원의 주종을 이루어 왔다. 따라서 불교도 귀의의 초점은 이와 같은 불상 조각에 있었으며 그 조성을 위한 모든 정성과 기공이 이곳에 결집되었다는 것은 다시 말할 것도 없다. 그리하여 삼국이 비록 시간적 순위를 달리하기는 하였으나 불상 조각은 불교 그 자체의 전파와 융성에 따라 각자의 기술과 재료로 이룩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러한 국내에서의 불상 조형에 있어서는 그 모범이 먼저 중국에서 전래한 불상에 있었으며, 이어서 동양을 하나로 묶었던 불교 제국의 긴밀한 교류를 통하여 혹은 서역 혹은 멀리 인도와 간접 또는 직접으로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같은 동양 각국이 한 덩어리가 되어서 인물과 조형이 서로 교류되는 시기로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통일신라 시대를 먼저 들어야 할 것이다. 이때는 바로 일찍이 없었던 변형을 누리던 당대(唐代)에 해당하는 시기이다.

통일과 평화의 두 가지의 요건은 그 대로 불교 조형의 발달에도 필수적인 것이다. 그리하여 삼국 각국의 불교 수입과 그에 따른 중국 남북조와의 교통에서 이룩된 불상 조성의 지방은 마침내 하나로 합쳐져서, 통일된 넓은 국토를 무대로 신라, 통일 시대의 번영을 누렸던 것이다.

불교 전래 초기에 있어서 금동 불상이 조성된 것은 각국을 통하여 알 수가 있다. 이처럼 금동상으로 법당에 안치된 것은 거의 지금까지 전하고 있지 않다.

또 금동상 이외에 목상이나 토상이 조성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그 자료가 취약하므로 오늘날까지 전래하지는 못한다. 그리하여 금동상에 이어서 볼 수 있는 것은 삼국 말기 600년을 전후하여 우리나라 곳곳에서 많이 생산되는 화강암을 재료로 조성된 석상을 들 수 있는데, 불상은 자연 암벽에 마애든지 또는 작고 큰 원각상으로 조성되었다.

이러한 석각상의 발생과 발달은 그 후 신라 통일기에 들어 융성하여서, 마침내 경주 토함산 석굴상 같은 걸작을 낳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와 같은 여세는 그 후 고려를 거쳐 근세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고대의 불상은 거의 이들 금동상(철상 포함)과 석상이라 할 수 있다.



애석한 것은 근세로 넘어오면서 불교가 국교의 자리에서 전락하여 산간 불교로 겨우 명맥을 이어 왔으며, 역대에 걸쳐 여러 차례 치렀던 외적의 침입으로 말미암아 당대의 조형을 거의 탕진하고 말았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경난은 사사성장(寺寺星張)하던 경주에서 오늘날 불과 몇 개의 고대 사원이, 그것도 퇴락되고 축소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는 실정에서도 짐작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일찍이 황룡사에서 전래하던 신라 3보의 하나인 금동 3존불과 그 장엄이 지금까지 전래하였던들 그것 하나만으로써도 신라의 불상 조형을 대표시킬 수가 있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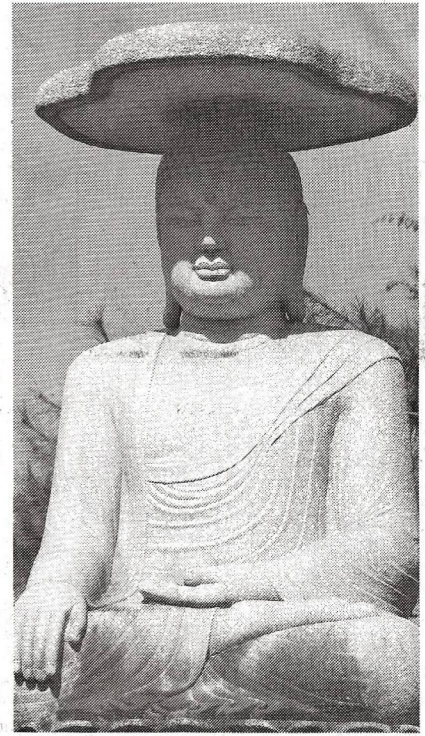
고대의 불상 조형은 그 시대의 믿음을 차례로 구현하여 왔다는 사실을 지적하여야 할 것이다. 그것은 마치 그들의 형식이 시대에 따라 다른 모

습을 보여서 혹은 삼국 시대에는 상징적 특색을 보였고, 신라 통일기에 이르러서는 사실적 특색을 발휘하였던 것을 비교하여 보면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양식과 그 내용이 시대에 따라 변천하여 왔다는 사실은 그들의 기교에서 나타나기도 하였다. 동시에 불교는 그 수입 당초부터 나라의 다른 여건과 일치하고 먼저 그 지배 계급의 믿음을 받아 왔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불교 그 자체가 정치와 연결되어서 각 시대의 국가적 요청과 국민 기원에 부응하여 왔다는 사실이다.

신라 시대에 있어서 미륵의 믿음은 곧 나라의 최대 과업인 통일 국가의 형성과 일치하였으며, 그를 위한 국민의 단결과 헌신이 또한 이곳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런 역사적 배경이 곧 미륵상의 조성 혹은 여래상, 보살상으로 표현하면서 마침내 오늘날의 금동 또는 석각의 걸작을 남긴 근본 요인이라고 하겠다.



또 신라가 통일을 성취하면서 많은 사원을 건립하였을 때 그 당초에 있어서의 성격이 호국이 있었던 것은 통일 초기 사찰의 성격에서 알 수가 있다. 그러나 8세기에 이르러 왕실이 나 귀족의 사사로운 기복을 목적으로

삼은 사원이 건립됨으로써 그 성격이 변모되기 시작하였다.

이런 추세는 9세기에 이르러 더욱 두드러졌다. 또한 사원의 원당(願堂)으로서의 성격은 8세기 중엽의 불국사에서 볼 수 있으며 동시에 석굴암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이들은 아직도 호국적 성격을 함께 지니고 조성되었던 것이다.

8세기에 들어서서는 아미타불상이 더욱 유행하였는데, 석굴암 본존은 석가 여래상이라는 종래의 통칭을 떠나 다시 고찰되어야 할 것이다. 또 신라 말에 이르러 비로사나불이 금동상과 석상 가릴 것 없이 등장하는 사실도 아울러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시대에 따르는 불상 조형의 변천은 고려에 들어서 점차 토착화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생각된다.

불교가 더욱 우리 자신의 믿음과 접근하고 재래의 토속 신앙과도 융합되는 과정을 겪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불상 조각 그 자체는 신라 말 이래 쇠퇴의 추세를 보인다.

전대의 조형을 모범으로 삼기는 하였으나 멀리 미치지 못하였으며 그러한 대세는 그대로 조선조에 계승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불상 조각의 전통만은 시대에 따르는 기복을 겪으면서 근세까지 계승되었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불교 미술 그 자체가 지니는 강인한 보수적 성격에서 유래한 것이다.

우리 불상 조각의 영광은 고대에 있었고, 이에 따라 삼국 이래의 걸작이 지금까지 전래되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고 또 기적도 아니다. 그것은 그들을 수호하여 온 믿음과 정성에 의해서 비롯된 것이다. 그 믿음과 정성을 우리 선인들은 지녀왔으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오랜 믿음의 역사와 삶을 이어 왔던 것이다.

불상 자체의 양식적 고찰에서 시대의 판별과 우열을 가리는 기준을 삼으면서 동시에 그 배후에 숨어 있는 믿음과 기원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이처럼 고대의 불상이 그 양식과 내실(內實)의 양면에서 고찰될 때 참된 모습과 이해에 더욱 접근할 수가 있을 것이다.

총지동의보감

치매에서 나타나는 정신증상



김장규 원장

치매는 기억력과 언어능력 등 인지기능의 저하가 특징적인 증상이다. 그러나 치매가 진행과정 중에 기분장애, 망상, 환각, 행동 및 인격장애 등의 증상이 흔히 발생한다. 기억력장애나 언어장애보다도 오히려 이런 정신증상때문에 가족이 겪는 어려움이 더 커지고, 이런 문제때문에 입원해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노인어르신들에서 아래와 같은 정신증상이 나타나면 치매때문일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치료를 신속하게 시작해야 한다.

1. 기분장애

치매에는 불안, 조증, 주요 우울증, 심한 감정의 굴곡 혹은 감정실조, 무감동 등의 정동장애 증상들이 흔히 동반된다.

2. 망상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30-40%, 그리고 다발성 경색치매 환자의 40%에서 병의 경과 도중 망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과거에는 이러한 망상의 발생기전을 치매가 진행되면서 현실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능력이 감소되고 인지기능이 붕괴되는 것에 대한 보상작용으로 추정하였으나, 대부분의 망상들이 초기 혹은 중기에 흔히 발생되기 때문에 이러한 추정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주로 발생하는 망상의 종류는 피해망상이며 그중에서도 가장 흔히 발생하는 것은 도둑망상이다.

3. 환각

환각은 알츠하이머병보다는 혈관성 치매나 대사성 질환 혹은 독성상태에서 흔히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발생빈도는 적은 편이다. 알츠하이머병에서는 약 5-20%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퇴행성 질환 중 하나인 루이소체병의 경우 특징적인 초기증상으로 환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4. 행동이상

흔히 발생하는 행동이상으로 공격적 행동이나 반복적인 과다행동 등이 있다. 공격적 행동은 약 20-60%의 치매환자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이러한 행동이상들로 인해 조기 수용화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격적 행동은 단순히 상대방에게 화를 내는 정도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거나 위기상황 혹은 갑작스러운 환경변화가 발생할 때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동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뽑거나 신체 일부를 물거나 벽에 자신의 머리를 부딪히는 등 자해행동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자신에게 부적절한 환경이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으나 망상 혹은 환각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그 원인을 정확히 추적해야 할 필요가 있다. 책상서랍을 열었다 닫았다 하거나, 옷을 개었다가 다시 헹글어 놓기도 하고,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거나, 가재도구를 계속 여기저기 옮겨 놓는 등의 행동을 나타내서 가족들이 잠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러한 행동장애는 특히 저녁 무렵부터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야간에 휴식을 취해야 하는 가족들에게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게 된다.

죽비소리

내가 본래 없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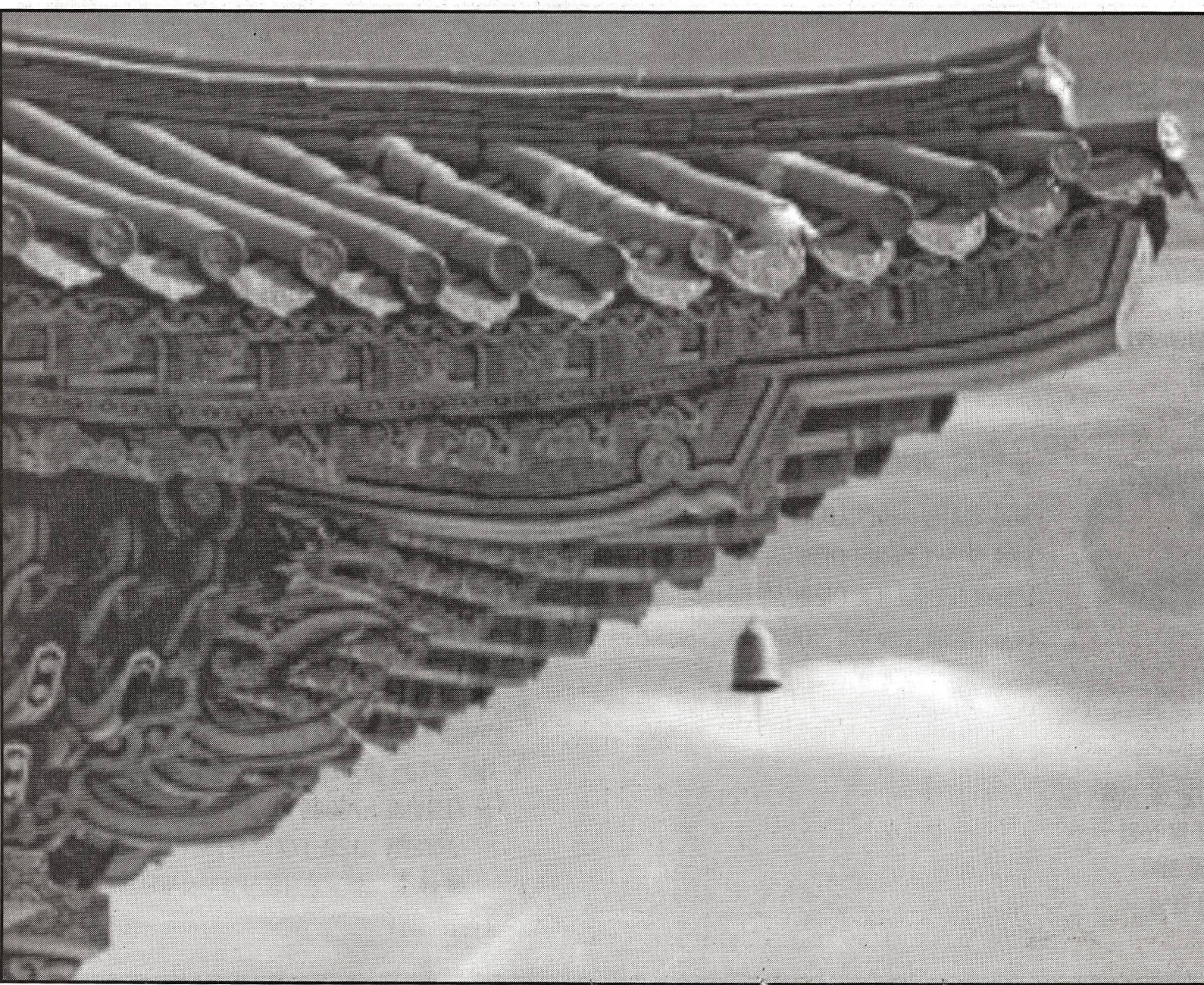
잠 못드는 사람에게 밤은 길고
피곤한 나그네에게 길은 멀듯이
진리를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에게
생사의 밤길은 길고도 멀다.

내 아들이다 내 재산이다 하여
어리석은 자는 괴로워 허덕인다.
'나' 라는 '내' 가 본래 없는데
누구의 아들이며 누구의 재산인가.

나보다 더 나를 것이 없고
나를 울게 말해주는 선지식 없거든
차라리 혼자 갈지언정
어리석은 사람과 길동무 되지 말라

어리석은 사람이 어리석다고
스스로 생각하면 벌써 어진 것이요
어리석은 사람이 어질다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법구경』 중에서



그동안 총지중 사회복지재단에 후원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전액 불우한 교도가정에 지원하며,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데 쓰이고 있습니다.

총지중 사회복지재단은 복지후원 사업을 통한 불국정도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불자님들의 많은 후원부탁드립니다.

불교총지중 사회복지재단

전화 : 02)552-1080

지상설법

“역할에 충실하며 인분지족하는 삶”



선도원 전수

(총지사 주교, 총무부장)

TV를 보거나 거리를 나가 보면 저마다 자신의 개성을 뽐내듯 각기 다른 스타일의 머리와 의상, 귀걸이, 목걸이를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피부 여기저기에 구멍을 뚫어 액세서리를 매다는 피어싱을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차별성을 두고 싶은 마음과 색다르지 않으면 남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사회 분위기가 함께 어우러져 이제는 엽기마저도 일상적인 것쯤으로 받아들여지는 요즘입니다.

획일화되거나 같음이 없이 서로의 개성들을 마음껏 드러내면서도 함께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는 사회는 누구나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나 일단 튀어보자는 식으로 외적인 모습에만 연연하며 자기다운 면들을 무시한 채 자신의 해야 할 역할을 소홀히 한다면 혼란만 가중되고 말 것입니다. 숲속에 뱀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

니다. 언제나 머리가 앞서고 꼬리가 뒤따르는 것이 불만이었던 꼬리가 머리에 대해 말했습니다.

“머리아, 오늘은 내가 앞서 갈 테니 선두를 양보할 수 없겠니?”

뱀의 머리가 말했습니다.

“내가 언제나 앞서 갔는데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그리고는 늘 하던 대로 머리가 앞서서 갔습니다.

그러나 꼬리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칭칭 감고는 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하는 수 없이 머리가 꼬리에게 양보하였습니다. 꼬리는 칭칭 감았던 것을 풀고 앞서 갔습니다. 그러나 꼬리에게는 눈이 없어서 뱀은 불구덩이에 떨어져 타죽고 말았습니다.

“소의 꼬리가 되느니 닭의 머리가 되라”는 속담을 빌리지 않더라도 기왕이면 남들이 알아주고 중요한 역할을 했으면 하는 것이 인지상정인 듯 합니다. 보다 발전적이고 성공한 삶을 꿈꾸는 것은 너무나도 바람직하고 당연한 욕구겠지요. 누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꼬리의 역할을 좋아하셨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꼬리의 역할보다 머리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는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머리만 있는 뱀을 생각해 보세요. 꼬리 없는 물고기를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제대로 움직이지도, 중심을 잡지도 못할 것입니다. 모든 존재는 상대적이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가 없는 꼬리도 꼬리가 없는 머리도 존재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모

두 머리가 되기를 원하고, 꽃이 되기를 원하고, 주연이 되기를 원하지만, 그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꼬리가 없이는, 뿌리가 없이는, 조연이 없이는 결코 제 빛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머리는 머리로서의 역할이 있고, 꼬리는 꼬리로서 할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남이 하는 일은 괜히 폼 나 보여 부럽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사회 지도자가 되어야만, 남의 이목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만

그런데 우리는 자신의 역할을 다하며 살고 있나요? 부모답게, 자식답게, 오빠, 누나, 동생답게, 살아가고 있나요? 혹시 '노릇'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대접만 받으려 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 사회가 여전히 출세 지향적이고 목적 지향적이라 보니, 과정으로서의 역할수행을 충실히 하거나 즐기는 것은 고사하고 성공을 위해 마지막 못해 인내해야 하는 것쯤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어떻게 하느냐'보다는 '무엇을 하느냐'에만 관심을 둔다는 말이지요. 게다가 자신

어쩔 수 없이 할 때와 주체적인 자세로 임했을 때는 너무나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삶의 주인이고, 그 사회의 주인이고, 역사의 주인임을 알고 살아간다면 자기가 맡은 일을 함부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인된 사람이 애써 지키고 관리하며, 어떻게 하면 발전하고 개선시킬 수 있을 지 계획하고 구상하며, 사랑과 정열을 쏟고, 눈물과 땀방울을 흘리며 노력할지언정 남의 집 불구경하듯이 방관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역할을 다하기는 했으나 무엇인가 개선해야 할 점은 없었습니까? 그 일을 통해서 스스로의 가치를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까?

만일 법을 듣지 못하면 늙어 가는 소와 다름없다.”는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 부지런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법회에 자주 모여 진리를 토론하고 매일 매일의 일과를 정해 단 몇 분이라도 꾸준히 수행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주위의 다른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가르쳐줘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잡아함경>에서 “사람들 중에는 마음에 더러움이 적은 자도 있거니와, 법을 듣지 못한다면 그들도 악에 떨어지고 말리라. 들으면 법을 깨달을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모르는 사람을 가없이 여기고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과 안락을 위해 진리를 설하는 데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지비스런 마음을 내어 지금까지 쌓은 모든 선근 공덕을 중생들과 위없는 깨달음에 회향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진리의 동참자가 되어 함께 행진할 때 이 세계는 사람다운 사람들이 사는 세계, 연꽃 피어나는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그 주변이 망가지고, 불자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세상은 더욱 혼탁해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도망치려 하지 말고 자신의 역할 속에서 공지를 느끼며 보람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할 일이 없고 심심할 때야 비로소 법회에 참석한다면, 유람하듯 구경꾼이 되어 짚을 찾고 부처님 보다 더 나은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진흙 뽕과 같은 사회를 살맛나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불자의 역할이고 사명입니다. 먼저 우리들은 <법구경>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들이 사는 세상 연꽃이 피어나는 세상

훌륭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농부는 농부대로, 환경미화원은 환경미화원대로, 의사는 의사대로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이고, 소중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훌륭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고위층 인사들이나 유명한 사람을 부러워하며 한숨 쉴 필요도 없고, 또한 높은 자리에 있고 유명하다 해서 다른 사람을 깔보아서도 안 됩니다. 자신의 역할을 다함으로써 공지와 보람을 느낄 때 그는 가장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망각하고 딴 짓만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하는 일은 보잘 것 없는 것쯤으로 치부하며 출세하면 결코 이따위 일은 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자기의 책임을 방기하거나 하지 못해 억지로 하며 다른 사람의 역할에만 눈 돌린다면, 결코 자기다운 보람을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사회는 동맥경화에 걸리고 맙니다.

자신이 맡은 역할에 대해 불평만 늘어놓거나 부끄러워하며 무성의하고 무책임하게 방관만 하는 사람을 사람답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것’은 인간된 당연한 도리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내버려서는 아무래도 부족함을 느낍니다.

사람다운 의미의 의미가 가볍게 여겨지고 사람 사이의 관계와 역할이 험기워지는 오늘날, 그래서 우리는 더욱 각박해지고 혼탁한 사회를 힘겹게 살아갑니다. 그 무엇에도 비견할 수 없이 고귀한 인간의 가치가 돈이나 물질보다 낮게 취급되는 가치의 전도는 자꾸만 관심의 방향을 바깥으로만 치달리게 하여 탐욕심을 부채질할 뿐, 시선을 안으로 돌려 반성하며 스스로 해야 할 바와 자신의 가치를 찾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인간성은 메달라 가고 사회는 물질문명의 어두운 그림자에 지배되어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진흙 뽕과 같은 사회를 살맛나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불자의 역할이고 사명입니다. 먼저 우리들은 <법구경> “사람이

이달의 설법문안

훌륭한 사람과 비천한 사람

사람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다시 말해 세계관(世界觀)이 다릅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각자의 세계관에 따라 인간의 행위뿐만 아니라 자연현상에 대한 해석도 다양하게 합니다. 따라서 어떤 한 현상에 대해 다양한 이견(異見)들이 나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이는 곧 사회가 건강하고 '민주화 진행 수준'이 높다는 뜻일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자기 의견과 주장을 펼치는 자유를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그 자유에는 일정한 한계와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란과 논쟁에는 '꼭 있어야 할 한계와 책임'이 보이지 않습니다. 모두 극한(極限)으로 내달리며 마치 해방 공간에서의 좌우익 대립이나 극렬한 진보·보수의 다툼을 재현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야말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살펴보고, 자기 나름의 관점과 철학에 따라 옳다 혹은 그르다고 판단을 내리고 밖으로 주장을 펼치는 성숙함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또는 우리가 저 편을 꺾어야지, 무너뜨려야지, 아예 죽여 버려야 돼!”하는 식의 전쟁터와 같은 살벌함까지 보입니다.

어느날 사리뫼태(舍利弗)존자가 부처님을 대

신해서 '인간이 가진 더러운 속성'과 '그에 따르는 수행자들의 태도'에 대해 비구들을 가르쳤습니다.

“세상 사람들에 네 종류가 있지요. 첫째 자기 안에 더러움이 있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 둘째 자기 안에 더러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 고치려는 사람, 셋째 자기 안에 더러움이 없지만 그것을 모르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 넷째 자기 안에 더러움이 없음을 알고 앞으로 더러움이 끼지 않도록 단속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요. 이 중에서 더러움이 있지만 그것을 모르는 사람과 더러움이 없지만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하천(下賤)한 사람이요. 그러나 더러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고치려는 사람과 더러움이 없음을 알고 더러움이 끼지 못하도록 단속하는 사람은 수승(殊勝)한 사람이요.” 이때 어떤 비구가 일어나서 사리뫼태 존자에게 궁금한 사항을 여쭙었습니다.

“존자여, 왜 어떤 사람은 더러움이 있는데도 수승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더러움이 없는데도 하천하다고 하십니까?” “더러움이 있으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것을 없애려 하지 않지요. 또 더러움이 없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더러움이 끼어도 그것을 모

르기 때문에 항상 부지런히 닦으려 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을 하천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나 자신에게 더러움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더 이상 더러움이 생기지 않도록 하지요. 그래서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을 수승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요.” “존자여, 그러면 무엇을 가리켜 더러움이라 합니까?” “욕심에서 생기는 나쁜 행동을 더러움이라 하고. 예를 들어 계율을 범하고도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르기 바라거나, 남이 알게 되면 부끄러워하기 보다는 오히려 화를 내고 좋지 않은 마음을 품거나, 자신만이 부처님께 질문을 드리고 또 부처님께서 자신만을 위해서 좋지 않은 마음을 품는 것이 바로 더러움이요. 그러므로 수행자라면 항상 이와 같은 더러움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요.”

만약 우리들이 사리뫼태(舍利弗)존자의 가르침대로 자기의 더러움, 단점이나 결점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현상을 둘러싸고 '전쟁과 같은 살벌함'이 벌어질까요? 위의 내용을 요즈음 말로 바꾸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법률이나 윤리·도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도 자신이 그랬다는 사실을 남들이 모르기 바라거나, 혹 남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화를 내며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려 하거나, 재력과 권력이 있는 사람이 지적하면 공손하게 받아들이지만 반대로 자기보다 힘이 없는 사람이 잘못을 지적하면 화를 내며 불쾌해하거나, 세상만사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심지어 세상을 원망하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단점과 결점이라고 합니다. 이런 단점과 결점이 없는 사람, 그리고 후 단점과 결점이 있지만 '내게 이런 잘못이 있다'고 살펴 알면 훌륭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잘못된 행동인지 몰라 무방비상태로 있거나, 자신이 잘못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은 천박한 사람입니다.” “내 주장만 옳다”며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들어볼 생각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부류에 속할까요? 혹 사리뫼태 존자가 언급한 단점과 결점을 그대로 갖추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하였는지 살펴볼 마음조차 없이 남의 약점을 찾으려고 온 마음을 쏟고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이런 사람들에게 혹시라도 '훌륭하다'는 수식어를 붙여줄 수 있을까요? 문제는 이런 경향이 어느 한 분야에만 한정된 특수한 현상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전 영역에 걸쳐 널리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화를 통해 서로의 생

각과 주장을 이해하고 사랑이 담긴 비판을 건네주는 지비심이 없이, 상대를 무너뜨리고 말겠다는 투쟁 의욕과 증오심이 넘쳐납니다.

어떤 사람이 악을 범했다 해도 거듭 되풀이해서는 안 되고, 악행에서 회의를 구해서는 안 되네. 악이 쌓이면 괴로울 뿐이니.

‘결과가 나한테 오지는 않을 거야’라고 하며 앞에 대해 가벼이 여기지 말아야 하리. 작은 물방울들이 떨어져 물독을 가득 채우나니,

그러렴 어리석은 사람은 작은 악을 하나 하나 쌓아서 자신을 악으로 가득 채우게 되네. <법구경>

‘내게는 혹 잘못이 없을까?’ 자성(自省)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회는 구성원들이 평화로운 삶을 누리며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잘못을 할 리가 없어. 저 사람들은 항상 나빠!”라며 ‘남 탓하기’에만 익숙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마음을 살펴보고 자기 바깥 세상에 자비심을 품고 살아가는 평화의 화신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사람, 한사람이 평화로우면 세상이 평화로워집니다. ‘심청정(心淸淨) 국토청정(國土淸淨)’이고, ‘일즉일체다즉일(一即一切多即一)’입니다.



한마리 나비의 날개짓으로 지구반대편에 태풍을 일으킨다는 나비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눈에 띄지 않는 충지정보사의 작은 몸짓이 충지종의 역사를 만듭니다.

불교설화 <3>

세조 대왕이 문수 동자를 친견하다

세조대왕은 이조 제7대 왕이다. 조카 단종을 죽이고 왕위에 올랐으나 어느 날 밤 꿈에 형수(문종황후 즉 단종의 어머니)가 나타나 "에이 더러운 인간아, 부위와 영화가 좋다. 한들 어찌 감히 사람이 사람을 죽인단 말이나?"

하고 얼굴에 침을 뱉었다. 그런데 그 날부터 세조 대왕이 몸에는 이튿날 알 수 없는 종기가 나 백약이 무효였다. 생각다 못한 세조는 금강산에 들어가 기도할 것을 마음먹었다.

세조가 단발령에 이르니 산색은 청정하여 마치 부처님 몸을 보옵는 것 같고 흐르는 내는 청정하여 마치 부처님의 범음성을 듣는 듯 했다.

환희와 선열에 정신을 잃은 세조대왕은 그대로 머리를 깎고 이대로 죽이 될 것을 생각하였다.

"여봐라, 거기 이발사를 데려 오너라. 내 머리를 깎고 이대로 죽이나 되어야겠다."

그때 대신 신숙주가 있다가,

"머리를 깎고 죽이 되는 것은 어렵지 않사오나 나라일은 누가 수습하며 만조백관은 그 누가 거느립니까? 마음을 거두시어 그 마음으로 차라리 불사를 지음이 좋은가 하나이다."

"그렇다면 내 중은 되지 않겠으나 참회의 표시로 잊머리만 자르리라."

하고 사방은 그대로 놓아두고 가운데 머리만 뿔뿔 깎았다. 그리고 일행은 그 단발령을 넘어 내금강 만폭동 마하연으로 가려 하였다. 그런데 난데없이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어찌 감히 죄인이 대승보살의 깨끗한 도량에 참례하려 하느냐? 너는 거기를 가지 못하리라."

"천만 사람이 다 갈 수 있는데 어찌 저만 홀로 못 간다 하옵니까?"

"너는 조카를 죽인 죄인, 다른 사람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할 수 없이 세조의 일행은 천학봉 아래 이르러 원통암을 찾았다. 세조대왕은 맑은 물에 목욕하고 일주일을 기도하니 꿈에 비로서 마하연의 큰 길이 무지개처럼 나타나 보여 다음날 마하연을 참배하고 다시 양양 낙산사로 떠났다.

낙산사에서는 대중을 시주하고 오대산에 이르러 천일기도를 시작하였다. 오대산은 예로부터 오만진신이 유존하여 청정도량으로 이름이 높았던 곳이다. 상원사에 있으면서 부

처님의 정골 사리를 모신 적멸보궁을 매일 같이 오르내렸다.

어느 날 날씨가 무더워 더욱 몸 안의 종기가 불어터지는 것 같았다. 모든 시종들을 물리치고 홀로 시내에 들어가 더러운 부스럼을 씻고 있었다. 그런데 등에는 손이 닿지 않아 씻지 못하고 있는데 그 때 마침 어떤 동자가 길을 지나가다가,

"등을 문질러 드릴까요?"

하고 소리쳤다. 대왕은 깜짝 놀라며 동자를 바라보고 "마음이 있거든 이리 오너라."

하였다. 그랬더니 이 아이는 오자마자 대왕의 손이 닿지 않아 씻지 못하고 있던 등을 어떻게나 시원스럽게 잘 문질러 주는지 금방 하늘이라도 날아갈 듯하였다. 대왕은 하도 고마워서,

"내 오늘 아무 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으니 내일 사시에 다시 이곳에서 만나자. 그러하면 내 너에게 깊은 보답을 하리라."

하였다. 그랬더니 동자 가로되, "그런 것은 걱정 마십시오. 다시 만나지 않아도 괜찮을 것입니다."

"그럼 애야, 너 혹 거리에 나가더라도 임금님에 등을 문질러 드렸다는 말은 하지마라."

"예, 염려 마십시오. 그러나 대왕님께서도 개울에서 문수 동자를 친견했다고 누구에게도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였다. 대왕이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 곧 뒤를 돌아보니 머리를 두 가닥으로 깎은 동자가 금방 나무사이로 사라지는데 찾아보아야 다시 볼 수 없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었다. 대왕은 너무나도 신기하여 그 영험한 문수 동자를 붓으로 그려 모시게 하고 다시 그것을 조상으로 하여 모시게 하니 지금 오대산 상원사 큰 방에 모신 문수 동자가 그것이다.

세조대왕은 그 날로 모든 병이 완쾌하고 다시는 도지지 않아 그 은혜를 보답차 뒤여 분공에 돌아와서는 간경도감을 설치하고 불사를 국역인출 하고 원각사를 짓고 13층 탑을 세워 불멸의 문화사업을 간직하였다.

-거룩타, 불보살의 알 수 없는 힘이며, 죄인의 죄 값을 쇠사슬로 다스리지 않고 바른 말 고운 행으로 새 사람을 만든 후에 악착원모를 한 손으로 낮게 하고 나라에 불사를 일으켜 영원한 민족의 혼을 창작함이며-



상원사 전경

부처님께서는 믿음을 눈먼 거인에 비유하셨다. 믿음이라고 부르는 이 장님은, 지혜라고 부르는 아주 날카로운 눈매를 지닌 앵무새를 만나 이렇게 말했다. "나는 대단히 힘이 세나 볼 수가 없다. 너는 허약하여 걷지 못하나 날카로운 눈을 지니고 있다. 이리 와서 내 어깨 위에 올라 앉아라.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곳까지 멀리 갈 수가 있지 않느냐?"

부처님께서는 내 눈이 아닌 다른 사람의 눈으로 살아가는 것을 경계하셨다. 그것은 눈이 멀어 앞을 잘 못보듯이 믿음 또한 맹목적인 것을 결코 지지하지 않으셨다는 뜻이다. 항상 지성(知性)과 감성(感性) 사이에서, 지혜와 믿음 사이에서 균형을 취하라고 하셨다.

맹목적인 믿음이 산을 움직일 수는 있으나, 불행하게도 그러한 믿음은 앞을 볼 수 없기에, 어느 산을 움직여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지혜의 중요함은 바로 거기에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대열반(Mahaparinibbana)에 들기 전, 모든 비구승들에게 열반을 향한 수행을 늦추지 말 것을 당부하셨다. 마지막 말씀도, "반드시 잊지 말고, 전심전력하여 수행하라"는 것이었다. 이것은 부처께서 설하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말씀이다. 여기서 우리들에게 '잊지 말라'라고 함은, 일반적인 의미로는 '수행자가 배움과 지계 그리고 사

생활속의 밀교

타 수행을 할 때, 그것들이 그를 사람으로서 부귀와 천상의 부귀 그리고 고귀한 자의 부귀함으로 인도할 것이다'는 것이다. 하지만 '잊지 말라'고 한 그 진실한 의미는 우리가 "나를 살피는 것을 결코 잊지 말고 실행하라"는 뜻이다.

이 세상에 행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을 원한다면, 선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행복의 다른 이름이 선한 행위임을... 선한 행위를 주저하거나 피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그래서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상속의 수행

선한 행위를 해야한다. 그러면 우리의 수행도 한결 나아질 것이다.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선한 행위는 매일 자애관(自愛觀)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이미 마음이 준비되어 있게 되면, 우리는 매일 선업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잘 마주칠 것이다. 아무리 우리가 자신을 잘 평가하더라도 우리는 자신이 생각하는 만큼 선하지는 않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좀 더 선해져야 한다. 아무리 우리가 자신을 약하게 평가하더라도 우리는 자신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약하지도 않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좀 더 선해질 수 있다. 한편으로는 다른 이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약하지는 않다.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선하다.

하지만 우리처럼 그들도 좀 더 선해질 수 있다.

우리가 보내는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들은, 일상적인 활동과 일, 사람들과의 관계와 대화, 그리고 아주 드문 경우지만 우리는 자신의 몸에 대한 알아차림을 두기도 한다. 대부분은 자신의 생각과 느낌, 감정, 이야기를 그리고 계획에 빠져 지낸다. 그러한 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자신이 서두르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 주의를 두어보는 것이다. 서두른다는 것은 실상 속도를 내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 천천히 하면서도 서두를 수 있고, 빠르게 움직이면서 서두를 수 있다. 허둥지둥 넘어 질 정도라면, 틀림없이 우리는 서두르고 있다.

우리의 마음이 자신을 앞지르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몸에 관한 기대는 대신, 우리가 이르고자 하는 곳에, 그 바깥에 있는 것이다. 서두르고 있음을 느끼는 것은 좋은 반응이다. 우리가 그렇게 현재에 머물지 않을 때 마다, 바로 그 때, 그 장소에 그 동일한 상황에, 우리는 멈추고 몇 번의 깊은 숨을 쉬어야 한다. 그래서 다시 몸으로 편히 돌아오는 것이다. 앉아 있을 때, 자신이 앉아 있음을 느껴야 한다. 걷고 있을 때, 걷고 있는 단계를 느껴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아주 명확하게 언급하셨다. "자신에 대한 관찰이 자신을 열반에 들게 한다." 자신을 잊지 않고 수행하는 것이 생활 속의 수행이다. <경계/통리원 교정부장/법장원 연구원>

진언수행의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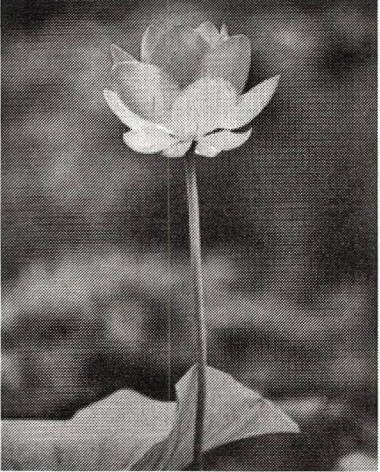
자성일 불공이란 세간에서 말하는 요일 가운데 일요일에 불행하는 법회를 말한다. 자성일 불공의 의미는 '나의 본성(本性), 즉 자성이라 한 것은 대승불교의 실천행인 육바라밀을 요일별로 배대하였을 때 마지막 일요일은 자성을 찾는 날, 즉 깨달음을 얻는 날이 된다. 월요일은 보시의 날, 화요일은 지계의 날, 수요일은 안인의 날, 목요일은 정진의 날, 금요일은 선정의 날, 토요일은 지혜의 날이다. 지혜를 닦아 이론 다음이 무엇인가! 바로 지혜의 완성, 자성을 깨닫게 되는 날인 것이다. 그래서 본 종단에서는 일요일은 자성일이라 하고 자성이 이

루는 불공이므로 '자성일 불공'인 것이다. 자성일 하루 불공하는데 옛세 동안의 수익은 7일간 모두 일한 것보다 더 많아지고 또 안락하게 살게 되며, 자성일 하루 일을 한 그 7일간의 수익은 하루 불공한 6

자성일 불공

일보다 오히려 더 적어질 뿐만 아니라 옛세 동안에 고통 가운데 살게 된다. 종조님께서 이르시기를 '자성일 하루 불공하는데 옛세 동안 행복하게 살고, 자성일 하루 불공을 하지 않으면 육일 동안 고통 가운데 산다.'고 하셨다. 자성일 불공의 의례식은 순은 '대

중불사 법요'와 '동참불사 법요'에 따라 행해진다. 자성일 불공은 일요일 오전 10시에 시작한다. 첫째 시간은 대중서원으로, 둘째 시간은 개인서원으로 진행된다. 공식대중불사가 끝나면 동참불공으로 이어진다.



염주를 수지하여 소원성취, 즉신성불 이루소서!

염주속에 내마음과 불보살의 세계가 있습니다.

"염주는 모두가 있어 부처님이나 보살을 표시하여 모시게 되는 것이니 염주를 가지고 염불을 하게 되면 우리 중생이 지나는 과거, 현재, 미래의 고통과 슬픔인 모든 번뇌를 소멸하고 안락을 얻게 되는 공덕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염불을 하는데 수를 헤아리는 수주로서만 아니라, 불을 모시는데 알맞이 되도록 도와주는 법구로서, 나아가 불보살을 상징하는 공덕주로서 몸에 지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안정되어 모든 집귀들이 보기만 하여도 도망쳐서 화를 쫓고 복을 부르는 신비한 영험까지 지게 되며, 악한 자는 저절로 착한 마음을 지니게 되는 공덕을 갖게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천은사 염주

알이 둥글고 고를 뿐만 아니라 단단하고 보기 좋아 불자라면 누구나 한 벌쯤은 갖고 싶어 하지요. 손때가 묻을수록 반질반질 윤이 나면서 은은한 빛을 발하는 보리수 염주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보리수 열매로 만든다는 데에 더욱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천즉 염주

대나무는 일생에 단 한번 꽃을 피운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더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대나무 열매는 죽실, 죽미, 야매, 죽실만, 연실 등으로 부르며 모양이 밀 보리를 닮았습니다. 중국의 고전 "장자"에는 봉황에 대해 "오동이 아니면 머물지 않고, 대나무 열매가 아니면 먹지 않는다"고 하여 대나무 열매는 봉황이 먹는 상스러운 열매로 알려져 있어 그 열매를 맺게 하는 대나무꽃도 더불어 상스러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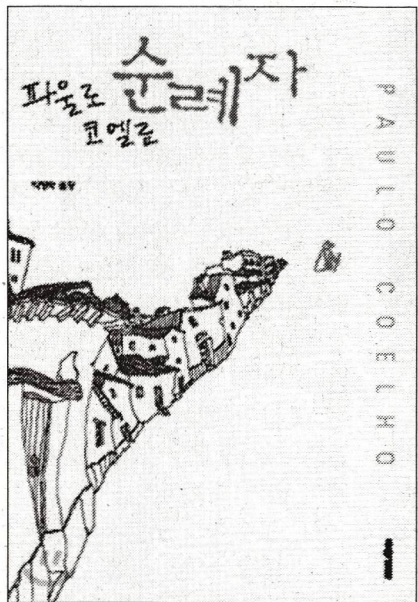
* 구입처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76-2 ☎ 02-552-1080 · 통리원 사회부

진보리수 108염주 ₩40,000 천은사 보리수 108염주 ₩35,000 천은사 54과 염주 ₩20,000 보리수 27과 단주 ₩15,000 천즉 54과 염주 ₩20,000



이달의 추천도서

순례자



파울로 코엘료 저 / 문학동네 / 정가 9,500원

연금술사의 작가 파울로 코엘료의 데뷔작. 『순례자』는 『연금술사』의 모태가 되는 작품으로, 지극히 '인간적인' 한 사람이 놀랍고 기적과도 같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깨달음에 이르는 여정을 그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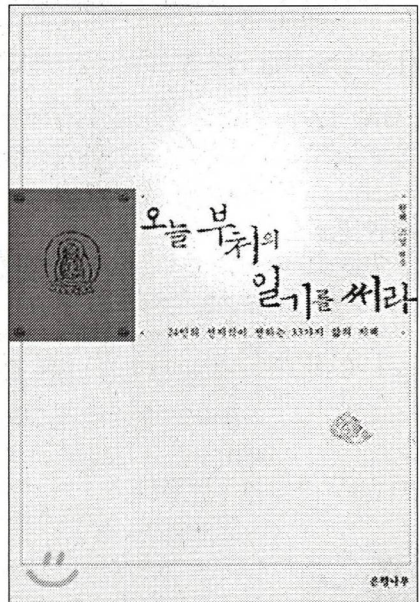
작가 본인이 '산티아고의 길'을 걸으면서 겪은 경이로운 체험과 영적 탐색을 가감 없이 담고 있어, 코엘료의 가장 진솔한 내면의 얼굴이 담겨 있다는 평을 받고 있는 작품. 파울로 코엘료는 2006년 '산티아고의 길' 순례 20주년을 맞아 다시 순례길에 올랐으며, 이 여정을 그의 개인 블로그 www.paulocoelhohoblog.com에 실시간으로 기록하였다.

한 남자가 있다. 사춘기 시절에는 부모와의 불화로 수차례 정신병원에 드나 들고, 청년이 되어서는 히피문화에 심취하고 반정부적인 활동으로 군사정부에 의해 수감되었던 '문제적 인간'. 세월이 흘러 그는 한 음반회사의 중역이 되어 아름다운 아내와 함께 안락하고 부유한 생활을 하는 '어른'이 된다.

자신이 특별하다고 믿는 그는 세상의 진리를 깨우친 '선민'이 되고자 영적 탐색의 길에 오른다. 그리고 그 진리가 자신의 손아귀에 들어왔다고 생각한 순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는 좌절을 맛보게 된다. 스승은 그에게 '산티아고의 길'을 순례할 것을 권한다. 그 길 위에 네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 '진리'가 있을 거라고. 그러나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칠백 킬로미터라는 끝 간 데 없이 펼쳐져 있는 먼 길이다. 게다가 그는 이 길을 온전히 걸어서 가야 한다.

그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안내자 페트루스와 함께 길을 떠난다. 길을 걸으면서 그들은 삶에 관한 소박한 대화를 나누고, 훈련을 배우고 행하며, 영적 탐색을 계속한다. 끊임없이 그를 다그치고 가차 없이 각성시키는 안내자 페트루스. 갈등과 반목을 거듭하는 산티아고로 가는 길은 그에게 더없는 고통으로 다가온다.

오늘 부처의 일기를 써라



원혜 스님 역음 / 은행나무 / 정가 14,000원

스물네 분의 선지식이 전하는 마음을 울리는 깨달음의 향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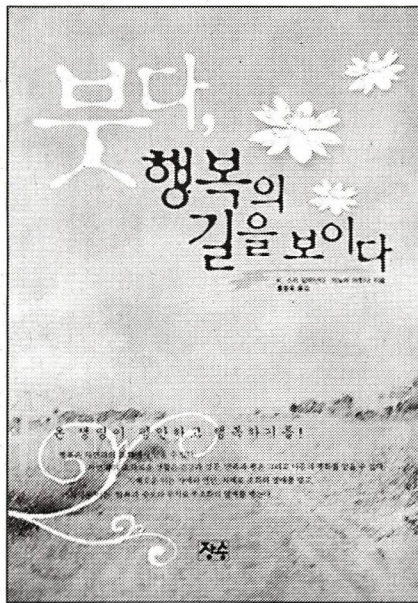
방금 이 범람루에 들어오기 전에 봉은사 주변의 빌딩들을 보면서 주지 스님한테 "주변 조경을 잘 하셨습니다. 절 주변이 빌딩 숲으로 잘 가려져 있군요."라고 했더니, 주지 스님께서 "그러잖아도 우리는 코엑스를 보현봉, 아셈 타워를 문수봉, 아이파크 빌딩을 지장봉,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라고 하시더군요. 이처럼 현대적인 도량에서 선을 주제로 대법회를 하는 것은 참으로 새로운 문화이겠다 싶습니다.

현봉 스님 법문 중에서
우리시대 대표 선지식이 들려주는 생생한 삶의 가르침과 지혜, 그 깊고 청량한 깨달음의 법법法香을 만나!
실제 법문을 듣는 듯 생생하고 쉽게 풀어쓴 생활 속 법문집

붓다, 행복의 길을 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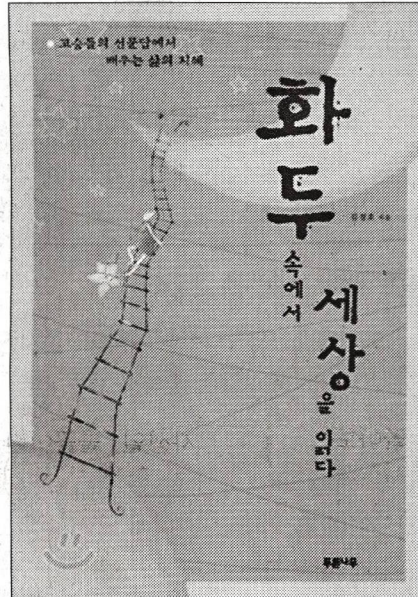
K.스리 담마난다, 아노마 마힌다 저 / 흥중역 / 장승 / 정가 9,000원

우리는 이 생에서 누구나 행복하기를 바란다. 그렇다면 어떻게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의 괴로움은 일체가 변



하고 사라진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데서 온다. 무지로 인하여, 그리고 자아라는 잘못된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않고 항구적인 삶을 이어가기를 바란다. 붓다는 우리에게 이 문제를 스스로 사색하여 불행의 근원을 이해하고 이를 제거하도록 가르침을 베풀고 있다. 이 가르침은 어둠의 세계를 건너 인류가 새 세계로 가는 길이 되어 줄 것이다. 이 책은 이러한 붓다의 가르침의 핵심만을 모은 것이다.

화두 속에서 세상을 읽다



김경호 저 / 푸른나무 / 정가 9,500원

대중 속에서 살아 숨 쉬는 화두가 되어야 한다

정해진 답이 없거나 생각의 여지가 많은 문제들을 놓고 종종 쓰이는 단어가 '화두'이다. 불가에서 나온 이 말의 원 뜻은 '깨달음을 얻은 조사들이 깨달음의 순간의 언어나 행위를 규범으로 삼아 후대의 수행인들에게 과제를 주었다'는 것

이다. 그래서 수행자들은 화두를 들면서 그 참 뜻을 깨닫고자 한다.

그렇다고 해서 화두가 수행자만의 전유물이라는 것은 아니다. '화두' 자체가 쉬운 건 아니지만 누구나 각자의 수준에서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의식을 던져주기 때문이다.

저자가 골라낸 화두를 저자가 이해하는 관점으로 풀어낸 책. 화두에 대한 배경 이야기와 작가의 설명을 통해 불교 사상의 기본적인 이야기를 하여 불교 사상을 쉽게 맛볼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가 사는 사회의 정치, 사회적 현실을 화두에 빚어 살펴보고 성찰하고 반성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비구니 산사 가는 길



이기와 저 / 김홍희 사진 / 노마드북스 / 정가 15,000원

시집 『바람난 세상과의 블루스』와 여행 산문집 『시가 있는 풍경』으로 자신의 파란만장했던 삶을 문화적으로 승화시켜 많은 독자들에게 몽롱한 감동을 불러일으켰던 시인 이기와. 그녀가 이번에는 전국에 있는 비구니 산사를 여행하며 느낀 단상을 모은 책 『비구니 산사 가는 길』을 내놓았다.

상처받은 시인의 내면이 여행을 통해, 그리고 그 여행 중에 만난 여러 비구니 스님들을 통해 정화되는 과정이 담담하고 아름답게 그려져 있다. 있는 그대로의 사물을 바라볼 줄 아는 지혜, 그리고 삶을 여유롭게 돌아볼 줄 아는 선의 경지. 이기와 시인은 그 선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 찾아다니고 묻고, 또 묻고 명상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하루하루 아등바등 살아가는 일상인들에게 마음을 비우는 지혜를 귀담아듣는다. 또한 그 지혜를 품고 있는 여러 가지 일화들을 들려준다. 세상 어느 것에 대해서도 분노와 미움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로 대하는 시인의 넉넉한 마음이 책 곳곳에서 훈훈하게 전해져 온다.

이달의 생활요가



필라테스 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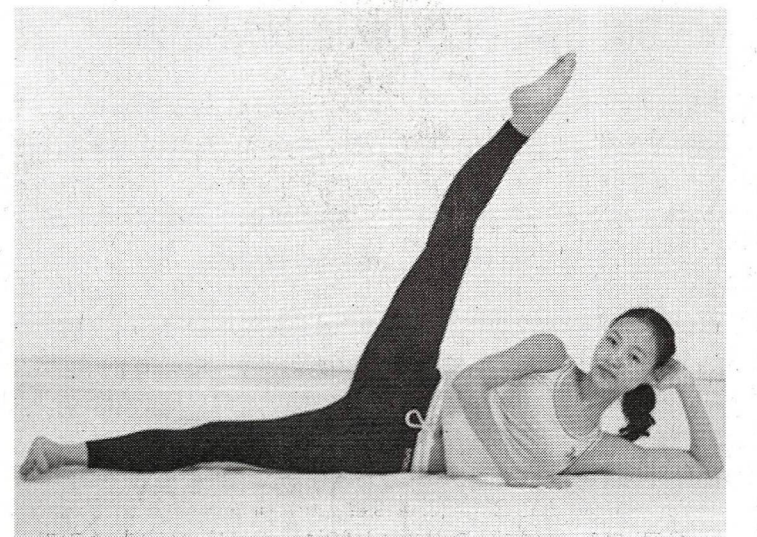
필라테스 요가란

필라테스 요가는 인도의 요가와 서양의 스트레칭의 장점을 따서 만들어진 운동이다. 인체 밸런스 유지와 근력 강화를 그 목적으로 하며, 몸의 긴장을 푸는 동시에 근력을 강화하면서, 자세를 바로잡아주고 몸과 마음을 일치시켜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것을 운동의 기본 원리라고 삼고 있다. 정렬된 바른자세에서 호흡의 조절과 체계적인 동작을 반복하게 되면 근력이 강화되고 신체의 운동 중심이 안정되어 균형 있는 몸을 가꿀 수 있다. 또한 신진대사가 향상되고 인체순환계의 흐름도 원활해진다.

필라테스 요가의 특징

『필라테스 요가』는 단순한 필라테스보다 더 깊은 마음의 집중을 요하며, 호흡과 의식, 자세와 시선을 하나로 일치시키는 프라나드라를 중요시한다. 또한 필라테스 요가는 파워하우스Power House 뿐만 아니라 신체의 전반적인 유연성과 근력을 키우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전통 요가의 자세와 전통 필라테스 자세를 완벽히 익힌 후에 『필라테스 요가』자세를 시작한다. 필라테스 요가를 할 때는 자극이 미치는 부위에 좀 더 의식을 집중하고, 자세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며, 요가와 필라테스를 접목한 새로운 자세들을 창작해낼 수 있는 지도자의 자질을 갖추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필라테스 요가 동작



- 1) 양손은 어깨 넓이만큼, 무릎은 골반 넓이만큼 벌려 거머가는 자세를 취한다.
- 2) 마시고 내쉬면서 오른팔을 왼쪽 겨드랑이 밑으로 넣어, 오른쪽 어깨가 왼손 닿은 부분에 내려지게 한다. 왼다리를 길게 뻗어 왼발 엄지발가락이 오른손 새끼손가락에 닿도록 내린다.
- 3) 마시며 왼팔을 천장쪽으로 들어올렸다가 내쉬며 흉곽과 척추를 비틀며 반대 바닥에 팔을 내려 어깨가 닿아지도록 한다.
- 4)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행한다.
- 5) 복부의 근력을 기르려면 척추를 비튼 상태에서 다리를 들고 내린다.
- 6) 숨을 마시며 다리를 들어 복부의 힘으로 다리를 잡고 내쉬며 복부의 힘을 풀어 다리를 내린다.
- 7) 다리를 높이 들어 버티다가 넘어가지 않으려 최대한 노력하며 몸을 넘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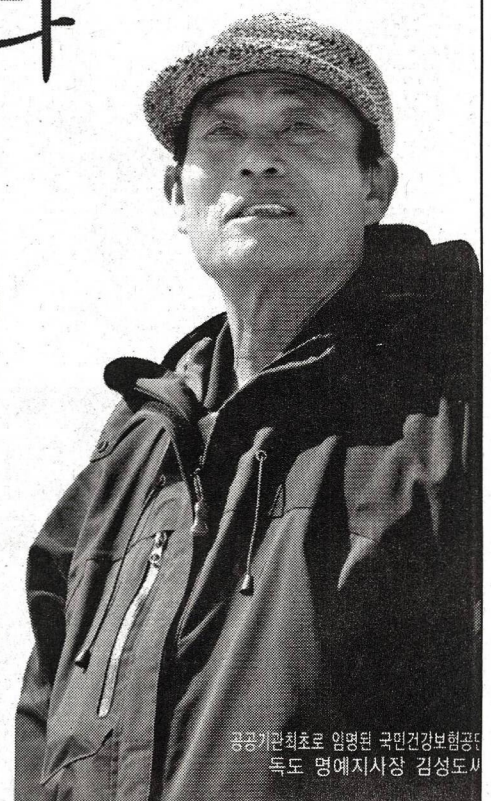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독도도 지키고, 건강도 지킵니다

- ◆ 검진대상
 - 지역 가입자 : 세대주와 만 40세 이상 세대원 중 홀수년도 출생자
 - 직장피부양자 : 만 40세 이상으로 홀수년도 출생자
 - 직장 가입자 : 비사무직 근로자 전체/사무직 근로자 중 격년제 실시에 따른 2005년도 대상자
 - *2004년도 대상자 중 검진을 받지 못한 분은 공단지사에 연락하시면 검진 받을 수 있습니다.
- ◆ 검진항목
 - 건강검진 : 1차 건강검진 - 진찰 및 상담, 흉부방사선검사 등 22항목
 - 2차 건강검진 - 폐결핵, 당뇨질환 등 8개 질환 28항목
 - 특정암검사 : 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은 암을 포함한 다양한 질병을 발견하기에 충분합니다.



공공기관최초로 임명된 국민건강보험공단 독도 명예지사장 김성도

“한국불교음악을 세계 음악으로”

제6회 전국불교음악제 9월 12일 구인사에서 열려



◇지난 12일 구인사에서 열린 제6회 전국불교음악제

제6회 전국불교음악제가 지난 9월 12일 천태종 총본산 단양 구인사에서 열렸다. 조사전 앞에 설치된 특설무대에서 열린 음악제에는 서울·부산·광주·제주 등 전국 12개 불교 합창단 2,000여명이 참가했다. 행사는 오프닝 곡(曲) '정진의 노래' 열반의 노래(박제천 작사, 이상규 작곡)를 시작으로 막을 열었다. 각 지역에서 올라온 참가팀들이 합창하는 가운데 대구

경북지역 불교음악 지휘자로 활약 중인 성악가 12명으로 구성된 '포탈라 솔리스트 앙상블'의 특별공연과 선무용단 '색즉시공'의 초현대무용이 선보이기도 했다. 주로 국악풍의 음악이 많은 불교음악제 특성을 살려 경기도립국악단이 반주를 맡았다. 32곡의 참가곡이 모두 끝난 후 행사에 참가한 합창단 전원이 출연, 이상규 씨의 지휘로 '공심공체 불 아닌 노래' '큰 스승님' '나무관세음보살' 합창이 있었다. 이날 행사엔 총지종 우수 통일원장을 비롯해 천태종 총무원장 장산스님, 전 총무원장 운덕스님, 등 사부대중 오천여명이 참석했다.

'우리는 하나, 세계도 하나, 마음도 뜻도 하나'라는 주제를 갖고 전국불교음악지도자와 전국불교연합합창단이 부처님의 지비사상을 널리 알리고자 시작된 불교음악제는 불교음악 창작과 전파를 책임진 삼보불교음악협회 전국지회와 전국불교합창단연합회 전국지회가 주관하였다. 삼보불교음악협회 이사장 운문스님은 "올해의 성공적 개최를 발판삼아 내년에는 한국의 불교음악이 전 종단과 함께 세계불교음악으로 승화되는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최측은 내년 음악제를 상암월드컵 경기장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교세확장 위해선 도심포교에 주력해야”

화엄회 총책토론회 '한국불교 미래를 준비한다'



◇화엄회 총책토론회에서 중앙 승가대 김응철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서는 도심포교에 매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같은 주장은 조계종중앙총회 총책모임인 화엄회(회장 성직)가 지난 9월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

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개최한 '한국불교 미래를 준비한다' 주제 토론회에서 중앙승가대 김응철 교수가 의제 제기했다.

김 교수는 이날 '한국불교 포교현황 분석과 진단' 주제발제를 통해 1995년·2005년 통계청 종교 인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가톨릭의 증가와 불교의 정체를 대비하면서 도심포교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조사결과 불교 인구비율이 1995년 23.2%에서 2005년 22.8%로 약 0.4%감소한 반면 개신교는 인구수와 인구비율이 모두 감소했고, 가톨릭은 인구수는 물론 인구비중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1985년에만 해도 가톨릭은 원불교의 수준에 머물렀지만 2005년에는 원불교의 10배로 성장한 것을 볼 수 있다"며 "가톨릭의 가장 큰 성장 동력은

인구밀집이 높은 대도시의 적재적소에 성당을 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서울시내 구정별 인구조사 결과를 예로 들었다. 서울시내 중 유일하게 불교신자가 개신교신자보다 많은 구는 동대문구였으며, 서초구와 강남구, 양천구 등 이른바 포교 노른자위 지역으로 평가받는 강남지역에서는 불교신자가 가톨릭신자보다도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남지역의 포교가 저조한 이유는 도심포교의 중심점이 될 사찰과 도심포교를 이끌어갈 스님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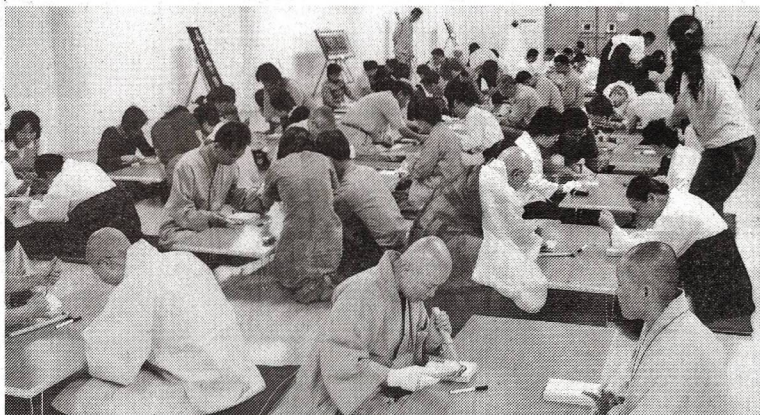
김 교수는 "구룡사·능인선원·불광사 등 사찰이 있다고는 하지만 강남지역에는 30만 인구의 대형교회가 될 수 없이 많다"며 "가톨릭 성당도 비록 수적으로는 열세이지만 전략적 지역거점 확보는 성공적이었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도심포교 등 불교계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불교인구는 예상보다 빨리 감소하고 불교의 대사회적 영향력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실질적인 포교대책 수립을 역설했다.

김 교수가 주장한 포교대책은 △여림이·청소년 포교대책 수립 △대도시·신도시 포교역량 확대 △인구고령화에 따른 불교 노인복지 시설 확충과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등이다.

“국제포교는 굳은 신심과 봉사”

국제포교사 한국 문화체험



◇국제 포교사들이 서각체험을 하고 있다.

해외에서 불교를 포교하고 있거나 파견 예정 포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 포교사 한국문화 체험'이 지난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2박 3일 동안 경북 안동과 경주에서 봉행됐다.

이번 국제포교사 문화체험은 한국 종단협 소속 종단 국제포교사 80여명이 참석했다. 첫날은 문경 봉암사에서 참선 강의 및 실수, 불화단장을 체험하였고, 둘째날은 안동 하회마을에서 탈춤 제작 및 체험, 서각 체험, 불국사를 견학하였으며 마지막 날에는 석굴암 새벽예불, 비구니 사찰인 문묘사를 견학하였다.

국제 포교사 문화체험에 참석한 한 포교사들은 "해외에서 불교를 포교하고 있는 포교사들이 많이

참석하여 상호간의 정보교류의 장이 되었으며, 해외에서 불교를 포교하면서 한국문화와 불교에 대한 정보의 부족을 경험하였고,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재인식하였다."고 밝혔다.

다. 한편 총지종에서는 원당 정사, 장동욱 교무, 유호철 교무가 동참하여 국제 불교포교의 현황을 이해하고, 불교 전통의 우수성을 체험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해운대 사찰은 해운정사, 부처님마을, 범어사포교원반야원, 우곡선원, 자비정사, 폭포사 등이다. 관련 자료에 의하면 해운대 신도시에는 사찰이나 포교원이 생겼다가도 금방 없어진다. 스님이 포교에 뜻을 있지만 기도나 초하루 등 법회 위주의 기존 포교 방식을 고집하기 때문에 이같은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불교계, IPTV 사업 진출”

한국불교 종단 협의회 임시이사회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의(회장 지관 스님·이하 종단협의회)가 초고속인터넷망과 TV단말기를 통해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양방향으로 제공하는 통신방송 융합서비스인 IP(Internet Protocol)TV 사업진출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종단협의회는 지난 9월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5차 임시이사회를 갖고, 종단협의회와 조계종, 불교방송을 중심으로 IPTV 사업추진 계획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종단협의회 사무처는 조만간 IPTV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

는 실무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IPTV 진출을 위한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종단협의회의 이 같은 결정은 최근 이웃종교의 무료일간지 창간준비와 IPTV 사업진출 모색에 영향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종단협의회 임시이사회는 이밖에 중국의 동북공정 추진과 관련해 불교계가 단호하고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중국 정부는 역사왜곡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서 초안을 근간으로 역사학자, 전문가 등의 검토를 거쳐 공식 성명서로 채택, 발표하기로 했다.

불교방송, 신임사장에 흥승기 씨

9월 8일, BBS 이사회에서 선임

불교방송 사장에 흥승기 동국대 교수가 선임됐다. 재단법인 불교방송은 9월 8일 마포 힐스테이인 서울 호텔에서 이사 17명 중 16명과 감사 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59차 이사회를 열고 흥승기(洪升基) 씨를 신임 사장으로 선임했다. 흥 신임 사장의 임기는 9월 11일부터 시작되며, 전 이성언 사장의 잔여임기인 2008년 7월까지 불교방송 사장을 수행하게 된다.

불교방송 신임사장으로 임명된 흥승기 씨는 "입기가 2

년이면 채 남지 않았지만 제 2창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흥승기 사장은 지난 9월 11일 불교방송 3층 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급변하는 방송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디지털다디오 전환, 인터넷방송국 설립, 영상산업 진출 등과 관련한 종합미디어센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히고 "국내 국제포교의 전초기지 및 불교계의 대 사회 창구 기능을 수행하겠다"고 다짐했다.



◇불교방송 이사회에서 사장으로 선임된 흥승기 씨(사진 오른쪽)가 이사장 도후 스님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있다.

“기존 포교방식 버려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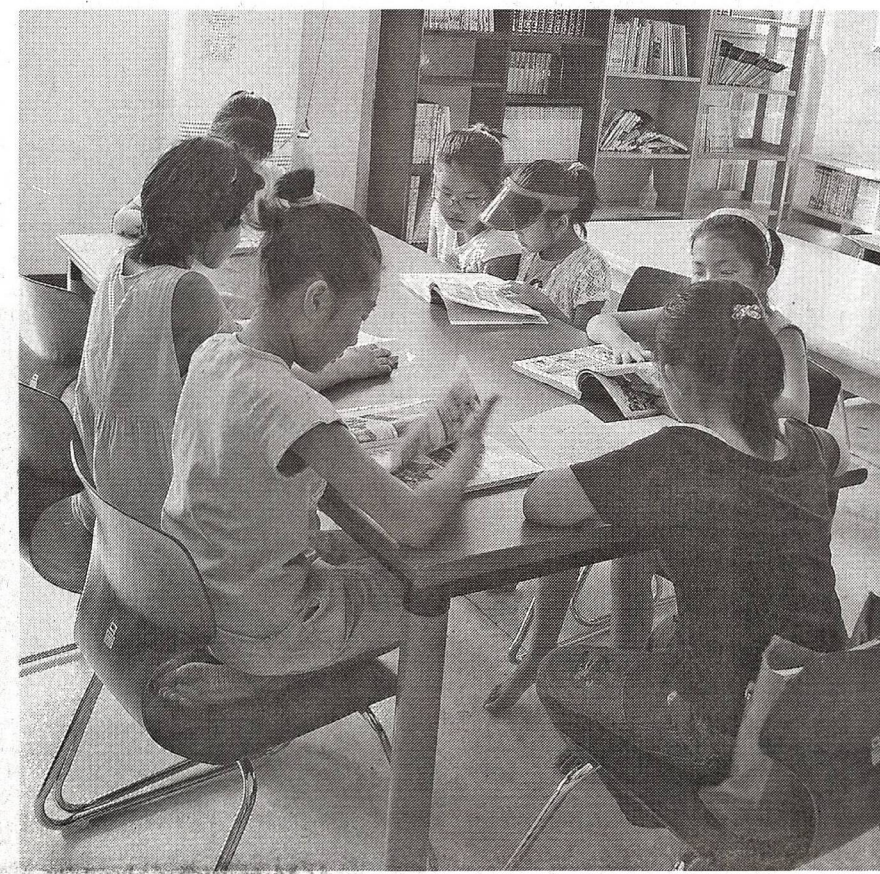
신도 특성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

최근 기독교의 한 부흥회에서 나온 '해운대구 71개 사찰이 무너지도록'이라는 제목의 기도문이 인터넷에 나돌았다. 이같은 기도문구는 최근 인구 유입 급증으로 종교간 소리없는 전쟁이 진행중인 해운대 신도시에 대한 타종교의 공격적인 전도 의지를 그대로 보여준다.

기독교는 신도시 개발시점부터 종교부지 확보를 위해 뛰었고 지금은 적극적으로 전도를 하고 있다. 이처럼 신도시 인구가 조만간 10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불교계의 해운대 신도시 포교는 아직도 걸음마 단계를

총지종 정각사 바라밀 공부방

바라밀 공부방은 불우한 아동들을 정성껏 보살피고, 교육시키는 것을 통해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실현하는 사회복지기관입니다.



설립목적

바라밀 공부방 활동은 획일적이고 통제적인 교육에서 탈피하여 개성을 존중하고 개인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현대 교육의 동향을 수용하고 인지적 영역 위주인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인성과 창의성을 신장시키고 교육구조의 경직성을 탈피하고 핵가족화로 인해 사회가 변화됨에 따라 가정을 둘러싼 환경과 가족제도를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

이용대상

저소득층의 맞벌이 부부의 아동, 결혼가정, 생활보호대상자 아동

프로그램

- 2시~3시 : 과제 및 학습
- 3시~4시 : 태권도
- 4시~5시 : 책고르기 및 독서, 감상문쓰기
- 5시~6시 : 영어, 한문, 컴퓨터, 수학, 미술

※ 바라밀 공부방 봉사자 모집

바라밀 아동들의 학습지도 및 예체능 지도를 해주실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주1회~2회 1시간정도 봉사해 주실 뜻있는 분을 기다립니다.

연락처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동 8-8 ☎ : 051-552-7901
시설장 - 전수 정일애 : 010-3913-6352, 이혜숙 : 010-4737-9321



한국불교박람회 2007년 3월 개최

불교 포교 및 정보교류의 장



올해 초 불교용품과 예술품을 선보인 한국불교박람회.

불교와 관련된 모든 콘텐츠가 한자리에 모인다. 한국불교박람회 사무국(사무국장 장혁, 제이컨벤션 사장)은 내년 3월22일부터 25일까지 서울 무역전시컨벤션센터에서 '2007한국불교박람회(www.bexpo.org)'를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박람회 참가업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공 주관해 처음 열렸던 한국불교박람회는 사찰 건축에서부터 각종 포교용품, 웰빙 관련 물품을 선보이면서 일반인의 높은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내년에는 참가업체의 다양화를 꾀하는 한편, 전체 전시공간의 3분의1을 무료 전시관으로 꾸며 불거리와 체험거리를 늘린다는 구상이다.

참객이 찾아오는 등 기대 이상의 높은 호응을 얻은 바 있다"며 "내년에는 전체 450개 부스 가운데 150개 부스를 사찰음식만들기, 전통탄본체험 등 체험전시장으로 꾸며 포교와 정보교류의 역할을 병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올해 초 불교방송과 제이컨벤션이

사찰음식 대가 스님 특별강연 "2006 韓브랜드 박람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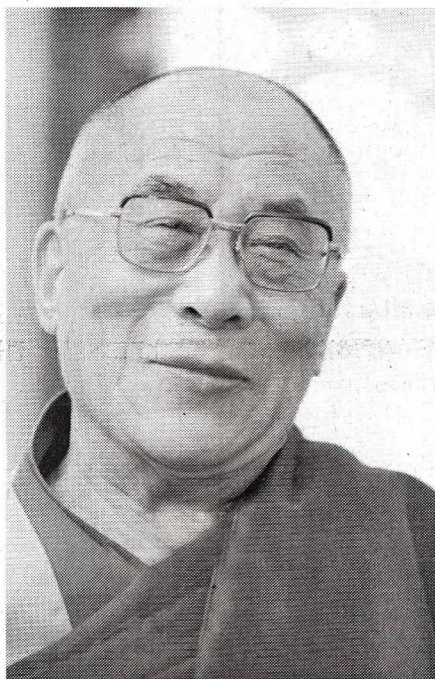
한국 사찰음식 대가스님들이 자존심을 걸고 건강 지도에 나섰다. 불교 조계종 전통사찰음식문화보존회(회장 선재스님)가 9월 28일부터 10월1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2006 韓브랜드 박람회' 기간에 특별이벤트로 사찰음식의 달인으로 불리는 스님들의 특별강연을 마련하였다. 사찰음식은 조출하긴 하지만, 청정하고 부드럽고 절도가 있어 명약에 가까운 '건강밥상'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산에서 만나는 도라지와 채전 발을 일구는 산승의 아름다운 노동시간을 지나 탄생하는 사찰음식은 자못 숭고하다. 최근 사찰음식은 요리도 다양해지면서 차림의 예술성까지 인정받고 있다.

일 작문 스님이 '현대인의 건강과 사찰음식'을 주제로 각각 '질병제로'의 시대로 안내하였다. 선재 스님은 선재사찰음식연구원 원장, 동국대 객원교수 등을 맡고 있고, 홍승 스님은 사찰음식연구원 회장을, 대안 스님은 금강사찰음식문화원 원장을, 적문 스님은 한국전통사찰음식문화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모두 현대인의 건강을 챙겨주기 위해 사찰음식을 가지고 먼 산을 내려온 정겨운 인물들이다.

한편 문화관광부 등이 주최하는 '2006 韓브랜드 박람회'는 우리 전통문화의 고급 상품화와 세계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국내외 다양한 전통문화 관련 업체가 참가하였다.

대가스님들은 모두 언론에 노출된 바 있어 이름이 귀에 익다. 28일 오후2시 첫 강연에 나서는 대안 스님은 사찰음식의 정신과 우수성을 소개하였다. 이어 29일 홍승 스님이 '현대인의 건강과 사찰음식'을 30일 선재스님이 '사찰음식의 정신과 우수성'을 10월1

달라이라마 "금세기는 대화의 시대" 美 덴버 웨시 센터 1만4천명 운집



◇티벳 제14대 성인 달라이라마

세계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라마가 9월 17일 '피스잼(PeaceJam) 국제 청소년 회의' 행사장인 덴버 웨시 센터에서 열린 강연을 통해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달라이라마는 "과거에는 폭력과 유



◇소백산에 서식하고 있는 군림들.

천태종, 소백산 지킴이운동본부 발대 소백산 생태 및 자연환경 보호

대한불교천태종은 소백산의 생태 및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 9월, 24일 충북 단양 광법사에서 소백산 지킴이운동본부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천태종 나누며하나되기 운동본부 소속 환경시민단체 '소백산지킴이 운동본부'는 소백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발족한 모임으로 소백산을 올바르게 가꾸고 지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들 단체는 앞으로 소백산 자연 및 환경보호운동을 비롯해 △등산로 정소

와 관리 △무제한적 개발로부터 소백산 보호 △생태계 보호 세미나 및 학술토론 △소백산 홍보역할 등 다양한 사업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천태종은 홈페이지(www.cheontae.org)를 통해 회원가입 신청을 하면 소백산지킴이 운동본부 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백두대간의 중심축인 소백산은 멸종 위기의 동물과 식물들이 많이 분포해 있는 등 친화적인 자연환경과 생태계의 보존가치가 높은 국립공원으로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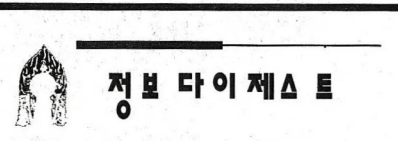
범어사 개산문에대제전

부산 범어사는 지난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범어사 개산 1328년을 기념하는 개산문에대제전을 개최했다. "범어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범어사 개산문에대제전은 22일 의상대사 개산대제 법요식을 시작으로 김놀이, 학술대회, 전래놀이마당,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행사 등을 진행했다.

22일 열린 법요식에서 범어사 주지 대성스님은 "오늘 행사는 스님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스님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축제의 자리"라며 "우리가 함께 어울려 화합을 노래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발원하는 자리로 만들자"고 말했다.

범어사 개산문에대제전 첫날에는 길놀이, 범어사 분말사 문화재 특별전, 점등식 등을 열어 시민들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를 마련했고 둘째날에는 의상대사 백일장과 사생대회, 마당극, 콘서트 등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하는 다양한 축제를 열었다.

달라이라마의 이날 강연은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과 관용, 이해 측면에 중점을 두고 약 한 시간 가량 진행됐으며, 20여분간 청중들과의 질의문답시간도 있었다.



▶수제비할 때 밀가루 반죽요령

가끔 수제비를 해 먹으면 별미로 맛은 좋지만 밀가루 반죽하는데 힘이 든다. 밀가루를 이기고 주무르고 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손목도 아프기 쉽다. 보다 쉬운 밀가루 반죽을 하려면 먼저 밀가루에 물을 알맞게 붓고 덩어리로 적당하게 만든 다음 비닐 봉지에 넣어 20분 가량 둔다. 그런 다음 반죽하면 쉽게 할 수 있다. 밀치가루와 콩가루를 조금 섞어 반죽에 넣으면 단백질과 칼슘이 첨가되어 영양가도 높아지고 맛도 좋다. 칼국수 할 때도 이렇게 한다.

▶김밥이 딱딱해 졌을 때

날씨가 더워져서 김밥을 냉장고에 넣어두면 김밥 중의 쌀이 0도의 온도에 가까우수록 노화되어 딱딱하게 굳어서 맛이 없어 처치 곤란한 적이 많다. 그럴 때 얼어놓은 김밥을 튀기면 좋다. 김의 비린내를 싫어할 땐 전분과 밀가루에 파슬리 가루를 넣으면 새파란 색이 어우러져 예쁘게 튀겨진다.

또 매콤한 것을 좋아할 땐 고추 가루를 튀김가루에 섞어 튀겨도 색다른 맛을 느낄 수 있다. 튀김이 칼로리가 높아서 걱정이 되면 계란물을 만들어 프라이팬에 저저도 김밥과 전의 느낌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국수가 익은 것을 확인하는 방법

국수 한 가닥을 꺼내어 던져보자. 국수는 조금만 잘못 삶아도 쉽게 된다든가 너무 불어터지게 된다. 팔팔 끓는 물 속에 국수를 넣고 얼마 동안 삶은 뒤에 익었다 싶었을 때 국수 한 가닥을 젓가락으로 꺼내어 주방의 타일 벽이나 유리창에 휘 던져보자. 이때 남편의 얼굴에 가서 붙지 않도록 주의할 것! ~ 국수가 찰싹 붙으면 잘 삶아진 것이고, 떨어지면 아직 덜 삶아진 것이다.

▶설익은 밥 맛있게 뜯들이기

가스불에 밥을 하거나 전기밥솥에 밥을 지을 경우 물의 양을 맞추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만약 설익은 밥을 지었을 때 슬로 뜯을 들이면 맛있는 밥이 된다. 즉, 다 끓인 상태의 밥에 젓가락으로 구멍을 몇 개 내어 정종을 조금만 뿌려준 다음 다시 한번 밥솥의 스위치를 넣거나 약한 불에서 5분 정도 두면 맛있는 밥이 된다.

서 초 실 버 의 원

1995년 서울에서 최초로 개원한 치매/중풍 전문요양병원으로
2003년부터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의료진과 간호진이 다
년간 축적된 경험과 기술 및 따뜻한 정성으로 어르신들을 잘 모
시겠습니다.

전문진료과목

- 치매
- 뇌졸중
- 노인성 우울증

진료 시간

평일(토) : 09:00~18:00

일요일 & 공휴일 : 예약진료

응급 / 입원환자 제외

최고의 진료 및 시스템 온라인 상담 : www.elderlynp.co.kr
 전화상담 : 02-575-1850 Fax : 02-575-8275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402-3번지

김장규 서초실버의원 원장

주요경력

- 1991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 1996년 서울대학교병원 신경정신과 전문의 취득
- 경기도 연천군 보건의료원 정신과과장
- 2000년 전임의과정 수료(서울대학교병원, 노인정신의학 전공)
- 2001년 석사학위 취득(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호주 멜버른대학 연수 (IMHLP: International Mental Health Leadership Program)
- 2002년 박사학위과정 수료(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올인정신병원 및 경기도노인전문병원 정신과 과장
- 전국 정신요양시설 평가위원회 위원

전통사찰 문화탐방

3대 해상관음 기도도량 - 강화도 보문사



손끝에 와 닿는 아침 공기가 말 그대로 완연한 가을이다.

우리 일행들은 달리는 차창밖으로 시원스럽게 펼쳐진 김포들녘의 황금빛 벼 이삭들을 몸과 마음으로 보듬으며 불심이 살아 숨쉬는 도량의 섬 강화도로 향했다.

어느새 햇살이 다르고 바람이 달라졌음을 느낄 수 있다. 유난히도 더운 여름날들이 길었던 탓일까? 가을의 느낌은 사뭇 싱그럽게 느껴진다. 황금 들녘과 신비스러우만치 조화롭게 어우러져 더욱 고와보이는 코스모스 길을 따라 강화도의 중심을 가로질러 외포리 선착장에 도착했다. 보문사가 자리하고 있는 앞섬 석모도로 들어가는 해리 여객선에 잔뜩 고무된 일행들과 함께 몸을 실었다

화화조미료로 범벅한 새우강에 갈매기들이 새우강 던져주기에 바쁜 사람들을 따라 섬과 섬을 오가느라 날개 깃털이 날았다. 그리 된 가을 주고 싶으면 마른 멸치나 갯지렁이를 던져 줄 일이지 몸에도 안좋은 스낵과자를 먹일까.

잠깐 바닷바람을 마시고나니 석모도에 도착 했다.

웅장한 일주문을 지나 가파른 오르막 길로 십여분 천천히 올라가니 정수리 위로 성채같은 절이 나타난다. 석축위에 앉은 범종각이 날아오를 듯 하다. 이 조그만 섬의 산기슭에 앉힌 절 치고는 사뭇 자태가 고운데다 정갈하고 청명하다.

다.

신라 선덕여왕 4년

(635년) 회정대사가 창건했다는 보문사는 석모도의 최대 자랑거리이다. 석모도 내 상봉산과 해명산 사이에 자리잡고 있는 보문사는 남해 보리암, 낙산사 흥련암과 함께 우리나라 3대 관음 도량으로 꼽힌다고 한다

보문사에는 창건 유래가 있다. "신라 때의 일이다.

어느 어부가 바다에 나가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듯 목격하게 뭔가 끌려왔다.

"앗싸야로~~! 이거 물 반 고기 반이구나!!"

좋아서 입이 찢어지려는 걸 억지로 참고 죽을 힘을 다해 그물을 당겼는데 이게 뭔 일? 그물속에는 고기라고는 뱀뱀이 한 마리도 없고 사람 모양의 돌덩이 23개가 들어 있었다. 실망한 어부가 돌덩이를 바다에 버리고 다시 그물을 쳤는데 또 그 돌덩이들이 웅기종기 단체여행이라도 하듯 걸려 올라 왔다.

신경질을 바라바라 내며 그 돌덩이를 다시 바다에 버린 어부는 바다쪽으로 감자떡을 서너개 날려주곤 집으로 돌아가서 술을 서너사발 들이키곤 잠이 들었는데, 꿈에 어느 노승이 나타났다.

"늬슈? 누구데 남 꿈에 허락도 없이 나타나슈?"

"이 사람, 원 성질하고는.. 네가 건져 올렸

기억하기 쉬우니 나같은 사람에겐 고마운 일이다.

그 석굴앞에는 오래 묵은 향나무 한그루가 배배 꼬인 채 하늘을 이고 있다. 수령이 약 600년쯤되는 고목이다.

6.25때 삼년가랑 죽어있던 소생했다하니 이 또한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대웅전 뒤편으로 마치 수미산으로 오르는 길인 듯, 가파른 돌계단이 곧두 서 있다.

돌계단을 따라 20분 올라가니 나가산 종턱에 마애석불이 있다.

한 계단, 한 계단을 오를때 마다 번뇌가 하나씩 사라질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도 해본다.

그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을 때 진정한 보살이라고 할수 있을 것인데 말이다.

1928년에 금강산 표훈사 주지 이화응과 보문사 주지 배선주가 나가산 종턱의 일명 눈

썩바위에 조각한 것이 보문사 마애석불좌상이다.

던 그 돌이 뭘지 물어?"

"앗따, 왜 또 약 올리시는거유. 그것들이 천축국에서 보내온 귀중한 불상이라고 된단 말이유?"

"그래!!!"

그리고는 두 번이나 바다에 수장시켰다고 똥통 혼을 내더니 내일 다시 그곳에서 불상을 건져 명산에 봉안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다음 날, 불상을 건져올린 어부는 꿈 속에서 노승이 부탁한 대로 나가산으로 불상을 옮겼는데, 끄덕대며 옮기던 불상들이 현재의 석굴앞에 이르자 갑자기 무거워져서 끄떡을 안하는지라 더 이상 옮길 수 없었다.

그리하여, 석굴이 불상을 안치할 신령스러운 장소라고 생각하고, 굴 안에 단을 만들어 모시게 되었다"라는 전설을 가지고 있다. 전설치곤 단순하지만

다. 불상뒤의 둥근 빛을 배경으로 네모진 얼굴에 보석으로 장식된 커다란 보관을 쓰고 손에는 세속의 모든 번뇌와 마귀를 쫓아주는 깨끗한 물을 담은 정병을 든 관음보살이 연꽃받침위에 앉아 있다.

얼굴에 비해 넓고 각이진 양어깨에는 승려들이 입는 법의를 걸치고 있으며 가슴에는 커다란 만자가 새겨져있다.

가파른 계단을 내려오면서 다시금 가을의 정취를 느낀다. 때 이른 낙엽이 반가움반 외로움반으로 느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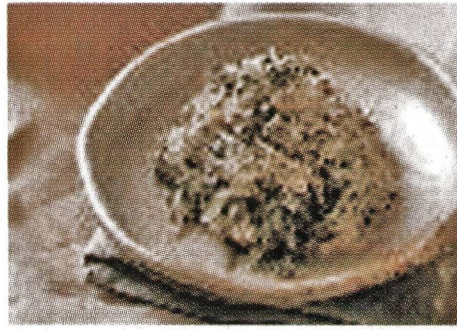
사람이나 자연이나 이치와 때에 맞아야 그 아름다움이 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본다. 보문사의 깨달음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순례를 떠났다.

깨달음의 소리... 종소리 울리면 번뇌는 사라지고 깨달음 하나 돌려공을 깨운다. 욕심을 버리고 고집을 떠나서 부처님 마음에 오가라 너와 나...



이달의 사찰음식 ⑩

▶ 녹차더덕무침



재료
밀가루 2컵, 말차 2큰술, 감자 1개, 애호박 1/2개, 다시마 1개(10*10cm), 건표고버섯 5개, 무 1/4개, 집간장 1큰술, 소금 1 1/2큰술

만드는 법

①밀가루와 말차를 함께 섞어 체로 쳐서 내린 후 미지근한 물에 소금을 약간 타서 오래 치대어 반죽을 한 다음 젖은 행주로 짜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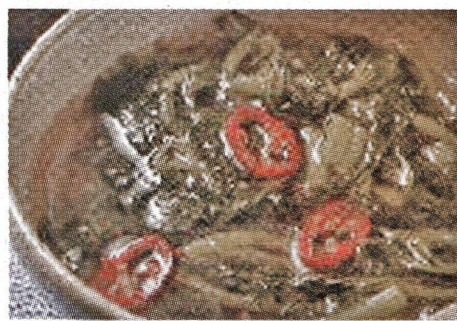
②냄비에 물을 넉넉히 붓고 끓기 시작하면 다시마와 무, 표고버섯을 넣는다. 끓으면 약한 불에 서서히 우려내어 건더기는 건져 식혀두고 다식물에 집간장과 소금으로 간을 맞춘다.

③감자는 껍질을 벗겨서 도톰하게 썰어두고 애호박도 이등분하여 반달 모양으로 썰어 준비한 후 식혀둔 다시마와 버섯도 체로 썰어 준비해둔다.

④다식물이 끓으면 감자를 넣고 반죽해둔 밀가루를 한 입 크기로 얇게 떼어 넣는다. 한소끔 끓으면 나머지 고명을 넣는다.

※ 녹차수제비는 건더기를 끓는 물에 따로 익혀내서 시원하게 식힌 다식물에 넣어 먹으면 별미다.

▶ 아욱국



재료
아욱 300g, 산사 된장 3큰술, 고춧가루 1/2큰술, 산사 간장 1/2큰술, 표고버섯 3개, 다시마(10*10cm) 1장

만드는 법

①아욱은 길진 부분을 잘라내고 껍질을 벗긴 다음 으개서 준비해 놓는다.

②표고버섯과 다시마를 넣고 약한 불에 오래 끓여 다식물을 준비해 놓는다.

③냄비에 다식물을 붓고 된장을 체에 걸러서 푼다.

④된장물이 끓기 직전에 준비해 놓은 아욱

을 넣는다.
⑤산사 간장으로 색을 내어 아욱이 푹 무를 때까지 약한 불에 끓인다.
※ 된장이 끓기 전에 아욱을 넣어야 풋내가 안 난다.

▶ 가지냉국



재료
가지3개, 흥고추 1개, 고추(매운 것) 1개, 진간장 1큰술, 산사 간장 1/큰술, 고춧가루 1큰술, 통깨 1큰술, 참기름 1큰술

만드는 법

①가지는 2등분하여 폭 찌서 먹기 좋게 찢어 놓는다.

②찢어 놓은 가지에 고춧가루, 참기름, 통깨, 진간장, 고추 썰어놓은 것을 넣고 무친다.

③무친 가지에 가니이 배어들도록 잠깐 두었다가 시원한 냉수를 붓고 산사 간장으로 간을 한다.

▶ 표고버섯찌개



재료
물표고버섯 6장, 무(작은 것) 1/4개, 두부 1/2모, 고춧가루 1큰술, 소금 1/2큰술, 국간장 1/2큰술, 다시마(10*10) 1장

만드는 법

①표고버섯은 흐르는 물에 재빨리 씻어 건져 물기를 꼭 짰 다음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놓는다.

②두부는 4~5cm 두께로 잘라서 프라이팬에 살짝 굽는다.

③무는 나박썰기를 하여 표고버섯과 다시마로 우려낸 다식물에 넣고 끓인다.

④약한 불에 서서히 끓여서 무가 푹 익으면 표고버섯을 넣고 산사 간장으로 색을 내어 한소끔 더 끓인다.

⑤마지막으로 두부를 넣고 소금으로 간을 하여 한소끔 끓이면 된다.

불교총지중은

보문총체총덕(普門總體總德)의 이불(理佛)이신 법신 비로자나불을 교주로 하고 관세음보살의 본심진언인 육자대명왕진언 옴마니반메흠의 주옥같은 진언(眞言)과 정확한 인계(印契), 엄격한 의례(儀軌)와 사중수법(四種修法)을 비롯하여 유가삼밀 관행법으로 진언을 염송함으로써 즉신성불에 이르게 하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실천하는 진언의 세계에서 업장을 소멸하고 즉신성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총지중의 불단 중앙에 옴마니반메흠의 본존과 오른쪽은 중대팔엽원을 중앙으로 414존의 보살을 모시고 생명의 성장과 탄생을 의미하는 태장계만다라, 왼쪽은 이불개의 작은 만다라로 1,461존의 보살을 모시고 부처의 경지, 깨달음에 이르는 경지를 나타낸 금강계만다라.



수행체험

법정정사 중국불교수행체험 중국 4대 성지 -보현보살의 도량 「아미산」을 다녀와서...

운상금정(雲上金頂) 천하아미(天下峨眉) 아미산(峨眉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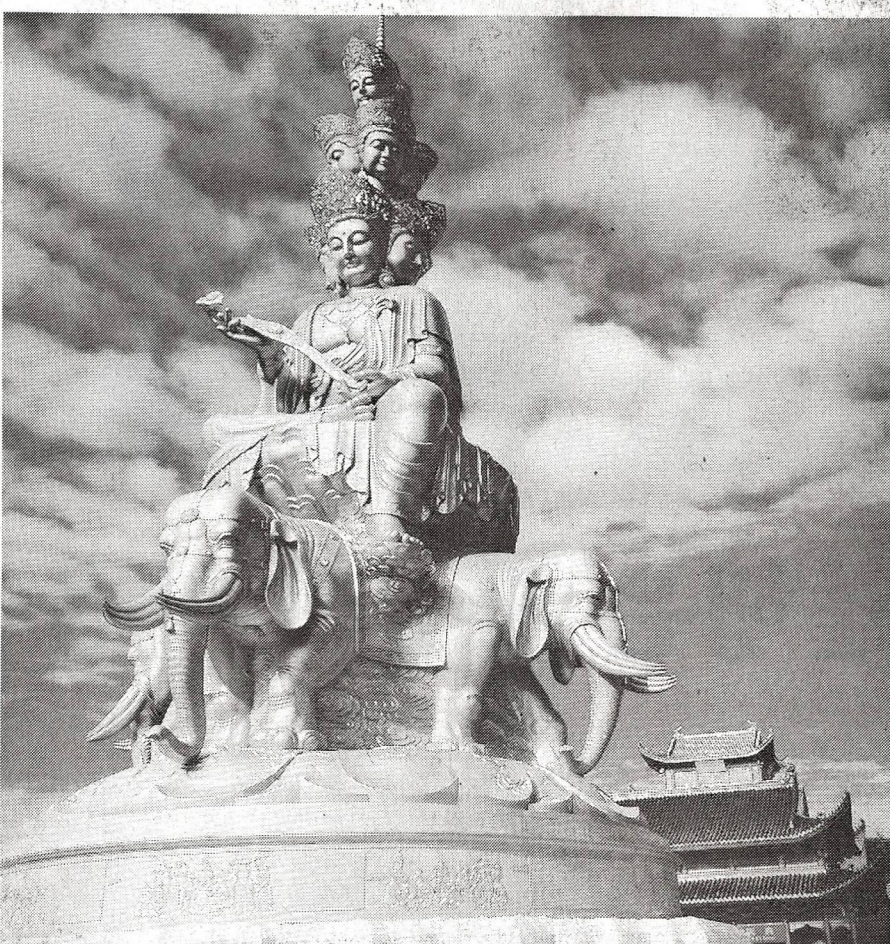
9월 11일 오후 1시, 한국불교수행단 37명이 중국불교수행체험을 위하여 11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갔다. 목적지는 중국불교 4대 성지 가운데 하나인 '보현보살의 도량'인 아미산(峨眉山)이었다. 중국불교의 4대 성지란 관음도량인 보타나가산, 문수보살도량인 오대산, 보현보살도량인 아미산, 지장보살도량 구화산을 일컫는다.

중국 현지시각으로 4시 20분 성도(成都) 공항에 도착했다. 한국시각으로는 5시 20분이다. 성도는 중국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 현덕이 세운 촉나라의 도읍이다. 책에서 읽었던 삼국지의 본고장을 직접 밟게 되니 감개가 무량하였다.

성도는 2000년의 역사를 가진 도시이다. 천부지국(天府之國)이라 불리며 비옥한 토지와 풍부한 천연자원 및 식량을 소유한 평원으로 사천성의 중부에 해당하는 곳이다. 연평균 온도가 섭씨 16.3도로 혹한과 혹서가 없고 겨울에도 따뜻하며 강수량이 풍부하고 땅이 기름져 농사 짓기에 최적의 조건이다. 1992년에 개방도시로 지정되어 중국 서남부 지역의 과학, 기술, 상업, 경제, 교통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총인구는 980만명, 전체면적은 12,400㎢이다. 주변 지역의 관광명소로 아미산, 낙상대굴, 두보초당, 도강언, 구채구, 팬더 자연보호구역 등이 있다.

공항 입국장을 나오니 중국 불교측에서 이미 마중을 나와 있었다. 중국 불교협회 국제부장 스님과 아미산 불교협회 실무자들이 우리를 맞이 하였다. 아미산불교협회 비서장 쉐스님이 우리를 마중하러 나오다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만났다. 3시간 가량을 달려다 도중에서 저녁공양을 했다. 벌써 날은 어두웠다. 원래 저녁공양은 중국사람에서 하기로 하였으나 너무 늦은 시간이라 사찰에서는 저녁공양 끝난 시간이라 음식점에서 저녁공양을 하기로 하였다. 요리를 제일 잘한다는 음식점으로 우리를 안내했다. 맛과 향이 우리에게 맞는 맛이었다. 기름에 볶고 데친 음식에다 진한 향이 나는 중국특유의 독특한 향신료 때문에 쉽게 젓가락이 가질 않았다. 배고프니 어찌랴. 맵밥 3그릇으로 배를 채웠다. 목적지에 도착하니 아미산의 중심사찰인 보국사(報國寺)였다.

아미산은 풍경이 아름답고 그 아름다움이 여자의 눈썹과 같다하여 아미(峨眉)라 하였다. 이 아미산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록된 곳으로도 유명하다. 희귀동식물의 보고(寶庫)로서 자연풍광이 아름다워 세계문화유산으로도 등록된 것이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중국불교측에서 유네스코 등록을 위해 무진 애를 썼다고 하였다. 아미산불교협회장인 영수 방장스님의 역할이 컸다고 한다. 유네스코



아미산 금정의 보현보살상

등록을 위해 3000미터 높이의 아미산을 50여 차례 올랐다고 했다. 그 원력과 정진력에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그 행(行)이 구도(求道)이며 보현보살의 살아있는 실천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아미산에는 수많은 불교사찰이 있다. 그 중심사찰이 보국사(報國寺)다. 보국사는 해발553미터에 위치하고 있다. 보국사의 당(堂)을 보조(普照)라 이름하므로 보국사를 달리 보조선림(普照禪林)이라고도 한다. 보국사는 명조(明朝) 시대에 건립되었다. 보국사의 경내는 1만 평방미터로 미륵전, 대웅전, 칠불전, 보현전 등이 있다. 아미산에 있는 사찰은 모두 보현보살을 모시고 있었다. 바로 아미산이 보현보살도량임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이튿날, 새벽 4시 30분, 대웅보전에서 중국스님들과 우리 수행체험단이 새벽예불을 올렸다. 알아 들을 수 없는 중국의 예불계승, 1시간 가량 이어졌다. 합장을 하고 삼배를 하고... 그 와중에 리듬과 장단, 발음이 귀에 아주 익숙한 것이 있었으니, '신묘장구대라니'와 '반야심경'이었다. 따라하지는 못했지만 그 리듬에 조금은 덜 지루하였다.

예불을 마치고 대중공양간에서 아침공양을 했다. 죽 한그릇과 나물, 빵으로 아침공양을 했다. 공양을 끝내고 아침 8시 30분, 1주일간의 수행체험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3000미터 높이의 아미산을 오르내리며 곳곳의 사찰을 순례하고 생활하는 일정이었다. 힘든 일정의 시작이었다. 이 산행일정에 중국측에서는 아미산불교협회 비서장 쉐스님이 함께 했다. 수행체험 일정 동안 고생을 아끼지 않

는 스님이다. 키가 조그만하나 강원의 강사로서 여간 간간해 보이지 않았다.

보현보살기육아상청동상(普賢菩薩騎六牙象青銅像)의 만년사

버스로 20분을 달려 도착한 곳은 만년사로 가는 케이블카 승강장. 보국사에서 내리자마자 비가 만년사에서 오르니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다. 미륵보전을 참배했다. 미륵보전에는 포대화상존자가 모셔져 있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서로 다른 곳의 성수만년사법당, 이법당에는 코끼리 위에 앉아 있는 보현보살상이 모셔져 있다. 만년사에서 유명한 존상이다. 북송(北宋)시대 태종의 명에 의해 주조된 것으로 육아(六牙)의 흰코끼리를 타고 있는 보현보살상이다. 보현보살의 머리 위에는 오불(五佛)이 새겨진 보관을 쓰고 손에는 여의보주를 지니고 있다. 코끼리 등 위의 연화대에 앉았을 때 모습인데 전체 높이가 7미터 35센티, 무게가 62톤이나 된다. 모두 동으로 제작되었다. 국보로 지정되어 있다. 보현보살을 태우고 있는 흰코끼리의 다리를 이루

면 조각이 이루어진다하여 관광객이 제일 참배를 많이 하는 사찰이다. 얼마나 많은 참배객들이 문질렀을까. 코끼리 뒷다리의 색은 모두 벗겨지고 반질반질하다. 무명증생의 고통이 느껴진다. 이 조각은 벽들로 지어진 것이 큰 특징이다. 이름하여 만년사 무량전전(無梁殿)이다. 인도풍의 건축양식을 띠고 있는 것이 또하나의 특징이다. 중국에 유례가 없는 사찰양식이다. 중국 사찰의 전각 대부분이 붉은 색 또는 흑색인 데 비해 이 건물은 황금색이다. 건축된지 400년 동안 18차례의 지진이 있었지만 아무런 피해가 없었다고 한다. 건축 역사상으로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고 자랑한다. 이 전각의 내부 전정은 아치형의 동형식으로 되어 있다. 전각 내부의 4면에는 24존의 원각철불상(圓覺鐵佛)과 303존의 소철불상(小鐵佛)이 새겨져 있다. 보현보살이 3천의 권속을 거느리고 아미산에서 설법을 하고 계심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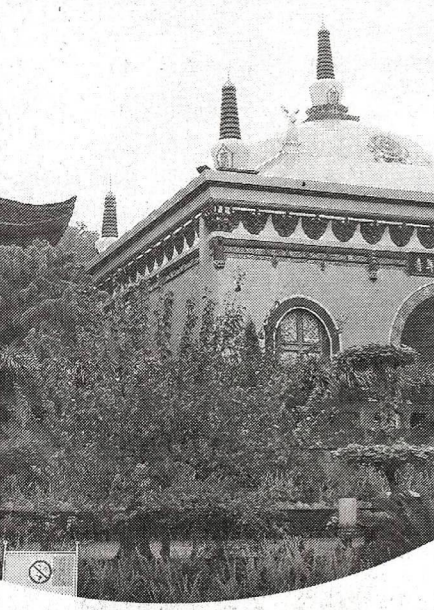
만년사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죽엽청(竹葉淸)은 아미산의 명차라고 한다. 사찰 어디를 가나 죽엽청을 내놓았다. 구수한 맛이 입안 가득히 남았다. 청명 이전에 탄 잎으로 만든 차다. 잎이 마치 대나무 잎과 같다고 하여 죽엽청이다. 부감원 스님의 설명에 따르면,

만년사는 옛날에는 고백수사(古白水寺)라 하였다고 한다. 계곡 이름이 백수라고 하는데서 유래된 이름이다. 만년사는 동진시대말 정토종의 해월 스님이 친견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만년사는 명나라 이전까지는 백수사라 이름하였다고 한다. 명나라때에 백수사가 성수만년사(聖壽萬年寺)로 바뀌었다. 명나라 황제에게 자식이 없었으나 불공공덕으로 아들을 얻게 되었다. 황제는 보현보살의 기도로 생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뜻으로 성수만년이라는 이름을 하사하므로써 성수만년사(聖壽萬年寺)가 되었다. 만년사에는 피아노를 치는 개구리가 연못에 살고 있다고 하였다. 울음소리가 마치 피아노 치는 소리와 같다고 한다. 그 개구리를 탄금과(彈琴蛙)라 한다. 휴식시간에 잠깐 둘러 보았다. 연못은 있으나 개구리는 보이지 않았다.

만년사에는 3가지의 보물이 있다. 하나는 청나라 강희 황제의 어인(御印)이고, 둘은 패엽경(貝葉經), 셋은 부처님의 치아이다. 패엽경은 현재 아미산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지만 둘은 만년사에서 직접 소장하고 있다. 우리 일행은 운봉계도 부감원 스님의 안내로 무량전전 2층에 소장되어 있는 만년사의 보물을 직접 볼 수 있었다.

관람을 마치고 만년사 대웅보전에 올라갔다. 대웅보전에는 삼신 동불상(三身銅佛)이 모셔져 있다. 삼신을 삼불이라고도 하는데 석가모니의 법신, 보신과 화신이다. 삼존불은 동으로 주조된 것으로 명나라때 가칭 갑오년(1534년)에 별전선사가 만들었다. 불상 전체의 높이가 3.85미터에 이른다. 중국의 사찰이나 불상들은 하나같이 크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온아함 보다는 위압적이다.

차담을 마치고 2시간 가량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숙소가 제일 마음에 들었다. 화장실, 목조가 딸린 호텔식 숙소였다. 이 정도 시설이면 앞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았다. 해발 1020미터의 깊은 산속에 있는 사찰의 숙소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내부시설에 놀라웠다. 대개 돈방은 신도나 관광객들이 묵고 가기 때문에 시설을 신경을 썼다고 했다. 저녁공양을 마치고 각자 숙소에서 차가워진 몸을 녹이며 둘째날 밤을 청했다.



아미산의 만년사

아미산의 최정상 '금정(金頂) - 구름 위에 금정이요, 하늘아래 아미산이라 (雲上金頂 天下峨眉)'

9월 13일, 수요일, 3일째 일정을 맞았다. 아침부터 비가 내렸다. 아침공양을 마치고 다시 케이블카로 하산했다. 다

시 버스를 타고 금정 아래까지 이동했다. 안개와 구름, 쌀쌀한 날씨. 매표소에서 파카를 지급받았다. 8시 40분에 출발한 우리 체험단은 11시에 금정 정상에 도착했다. 금정 정상은 해발 3077미터의 높이다. 안개 속에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희미하게나마 커다란 물체가 보였다. 보현보살상이 우뚝 솟아 있었다. 일순간 숨이 멈추고 가슴이 벅찼다. 수행체험단은 금정의 보현보살상을 중심으로 3번 돌고난뒤 삼배를 올리고 모두 반야심경을 독송하였다. 독경소리가 우렁차고 법열(法悅)이 가득했다. 구름과 안개가 잠시 걸렸다가 다시 가리워지는 모습은 더욱 신비스러움을 자아냈다. 그럴때마다 사람들은 탄성을 질렀다. 흡사 보현보살이 구름과 안개 사이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모습과 같았다. 금정 정상에는 금불과 보현보살상이 있다. 보현보살상은 동으로 제작된 것으로 높이가 48미터, 무게가 480톤이나 된다. 숫자 48은 보현보살 48대원을 비유한 것이다. 이 동을 사람들이 일일이 저다 날랐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처음 만난 전각이 와운선원(臥雲禪院)이다. 구름이 누워 있는 선원이란 뜻. 금정 정상에 적절한 표현이란 생각이다. 와운선원에서 감원스님과 차담을 하고도 점심공양을 했다. 특별한 메뉴로 점심공양을 준비했다고 했다. 사찰에서 보기드물게 14가지나 되는 음식이 나왔다. 꽤 많은 음식이다. 이때까지 사찰음식 가운데 제일 입맛에 맞았다. 이른 아침부터 공양을 하고 산행을 했으니 제법 시장기를 느낄만도 하였고, 무엇보다도 입맛에 맞는 음식이었는지라 모두들 3~4그릇을 비웠다. 산 정상에서의 공양은 특히 별미였다. 중국에서는 공양을 마칠때쯤이면 늘 탕과 차를 내놓는다. 탕은 속을 시원하게 풀어주고 차는 기름을 제거하기 때문이다. 중국스님들이 기름진 음식을 먹고도 살이 찌지 않는 이유는 늘 차를 내시기 때문이다. 기름진 음식이라 하여도 고기가 아니고 채소와 나물이 전부로 살필 일이 없다.

금정 전각 안에는 300년 된 보현보살상이 모셔져 있다. 현재 순금으로 개금불사를 하고 있는 중이다. 금정에서는 다음 계획으로 은, 동, 철, 전(銅)으로 각각의 전각을 지을 계획이라고 한다. 포부가 대단하고 원력 또한 스케일이 크다. 중국스님들이 대체로 그런 것같았다. 작은 것은 속이 차지 않는 모양이다. 현재 금정 뒤편에 보기 흉한 것이 아주 가깝게 우뚝 솟아 있는데, 송신탑이다. 금정 감원스님은 이 송신탑을 돈을 지불하고 다른 곳으로 이전시키기로 했다고 한다. 송신탑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철전(鐵殿)을 건립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그 말에 우리 수행단은 약속이라도 한 듯 우리와 같은 박수를 보냈다.

어느 것 하나 소중하고 감사하지 않은 곳 없습니다. 너와 내가 따로 없고 하나이니 비로자나부처님 세상입니다. 지구촌 구석구석 아름다운 우주 부처님 법을 받을 수 없는 보배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뻐서 전합니다. 천구에게, 이웃에, 인연 닿는 모든 이에게 총지종을 알립니다. 친한 이들을 만나면 총지종 염원을 건네줍니다. 받은이는 서서히 모두 총지 밀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도 감사합니다.

끝으로 스승님들 은혜 감사합니다. 종령님을 비롯해서 종단 모든 스승님들과 특히, 정각사를 다녀가신 스승님 한분, 한분 모습 떠올리며 감사함을 전합니다. 총지종 도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어느 것 하나 소중하고 감사하지 않은 곳 없습니다. 너와 내가 따로 없고 하나이니 비로자나부처님 세상입니다. 지구촌 구석구석 아름다운 우주 부처님 법을 받을 수 없는 보배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뻐서 전합니다. 천구에게, 이웃에, 인연 닿는 모든 이에게 총지종을 알립니다. 친한 이들을 만나면 총지종 염원을 건네줍니다. 받은이는 서서히 모두 총지 밀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어느 것 하나 소중하고 감사하지 않은 곳 없습니다. 너와 내가 따로 없고 하나이니 비로자나부처님 세상입니다. 지구촌 구석구석 아름다운 우주 부처님 법을 받을 수 없는 보배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뻐서 전합니다. 천구에게, 이웃에, 인연 닿는 모든 이에게 총지종을 알립니다. 친한 이들을 만나면 총지종 염원을 건네줍니다. 받은이는 서서히 모두 총지 밀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어느 것 하나 소중하고 감사하지 않은 곳 없습니다. 너와 내가 따로 없고 하나이니 비로자나부처님 세상입니다. 지구촌 구석구석 아름다운 우주 부처님 법을 받을 수 없는 보배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뻐서 전합니다. 천구에게, 이웃에, 인연 닿는 모든 이에게 총지종을 알립니다. 친한 이들을 만나면 총지종 염원을 건네줍니다. 받은이는 서서히 모두 총지 밀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어느 것 하나 소중하고 감사하지 않은 곳 없습니다. 너와 내가 따로 없고 하나이니 비로자나부처님 세상입니다. 지구촌 구석구석 아름다운 우주 부처님 법을 받을 수 없는 보배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뻐서 전합니다. 천구에게, 이웃에, 인연 닿는 모든 이에게 총지종을 알립니다. 친한 이들을 만나면 총지종 염원을 건네줍니다. 받은이는 서서히 모두 총지 밀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어느 것 하나 소중하고 감사하지 않은 곳 없습니다. 너와 내가 따로 없고 하나이니 비로자나부처님 세상입니다. 지구촌 구석구석 아름다운 우주 부처님 법을 받을 수 없는 보배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뻐서 전합니다. 천구에게, 이웃에, 인연 닿는 모든 이에게 총지종을 알립니다. 친한 이들을 만나면 총지종 염원을 건네줍니다. 받은이는 서서히 모두 총지 밀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어느 것 하나 소중하고 감사하지 않은 곳 없습니다. 너와 내가 따로 없고 하나이니 비로자나부처님 세상입니다. 지구촌 구석구석 아름다운 우주 부처님 법을 받을 수 없는 보배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뻐서 전합니다. 천구에게, 이웃에, 인연 닿는 모든 이에게 총지종을 알립니다. 친한 이들을 만나면 총지종 염원을 건네줍니다. 받은이는 서서히 모두 총지 밀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어느 것 하나 소중하고 감사하지 않은 곳 없습니다. 너와 내가 따로 없고 하나이니 비로자나부처님 세상입니다. 지구촌 구석구석 아름다운 우주 부처님 법을 받을 수 없는 보배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뻐서 전합니다. 천구에게, 이웃에, 인연 닿는 모든 이에게 총지종을 알립니다. 친한 이들을 만나면 총지종 염원을 건네줍니다. 받은이는 서서히 모두 총지 밀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어느 것 하나 소중하고 감사하지 않은 곳 없습니다. 너와 내가 따로 없고 하나이니 비로자나부처님 세상입니다. 지구촌 구석구석 아름다운 우주 부처님 법을 받을 수 없는 보배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뻐서 전합니다. 천구에게, 이웃에, 인연 닿는 모든 이에게 총지종을 알립니다. 친한 이들을 만나면 총지종 염원을 건네줍니다. 받은이는 서서히 모두 총지 밀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어느 것 하나 소중하고 감사하지 않은 곳 없습니다. 너와 내가 따로 없고 하나이니 비로자나부처님 세상입니다. 지구촌 구석구석 아름다운 우주 부처님 법을 받을 수 없는 보배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뻐서 전합니다. 천구에게, 이웃에, 인연 닿는 모든 이에게 총지종을 알립니다. 친한 이들을 만나면 총지종 염원을 건네줍니다. 받은이는 서서히 모두 총지 밀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어느 것 하나 소중하고 감사하지 않은 곳 없습니다. 너와 내가 따로 없고 하나이니 비로자나부처님 세상입니다. 지구촌 구석구석 아름다운 우주 부처님 법을 받을 수 없는 보배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뻐서 전합니다. 천구에게, 이웃에, 인연 닿는 모든 이에게 총지종을 알립니다. 친한 이들을 만나면 총지종 염원을 건네줍니다. 받은이는 서서히 모두 총지 밀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어느 것 하나 소중하고 감사하지 않은 곳 없습니다. 너와 내가 따로 없고 하나이니 비로자나부처님 세상입니다. 지구촌 구석구석 아름다운 우주 부처님 법을 받을 수 없는 보배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뻐서 전합니다. 천구에게, 이웃에, 인연 닿는 모든 이에게 총지종을 알립니다. 친한 이들을 만나면 총지종 염원을 건네줍니다. 받은이는 서서히 모두 총지 밀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어느 것 하나 소중하고 감사하지 않은 곳 없습니다. 너와 내가 따로 없고 하나이니 비로자나부처님 세상입니다. 지구촌 구석구석 아름다운 우주 부처님 법을 받을 수 없는 보배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뻐서 전합니다. 천구에게, 이웃에, 인연 닿는 모든 이에게 총지종을 알립니다. 친한 이들을 만나면 총지종 염원을 건네줍니다. 받은이는 서서히 모두 총지 밀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어느 것 하나 소중하고 감사하지 않은 곳 없습니다. 너와 내가 따로 없고 하나이니 비로자나부처님 세상입니다. 지구촌 구석구석 아름다운 우주 부처님 법을 받을 수 없는 보배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뻐서 전합니다. 천구에게, 이웃에, 인연 닿는 모든 이에게 총지종을 알립니다. 친한 이들을 만나면 총지종 염원을 건네줍니다. 받은이는 서서히 모두 총지 밀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신행체험 34

너와 내가 따로 없는 소중한 인연



연화심(지종영) 보살 (정각사 교도)

이 글을 쓰고 있는 9월은 참으로 감사하고 은혜로운 달입니다. 부처님! 나와 가족보다는 나라와 중생구제를 위해 몸 바치신 대성사

님 발자취를 더듬으면서 지금의 저희들이 부끄러워서 고개 떨구었습니다. 총지의 높은 뜻을 펼치기 위해 친척집을 가가호호 방문하여 도움을 청하시고 자신의 몸을 위해서 하루 한기 약으로 여기셨다면 원정대성사님! 총지밀법의 시대를 열고 사원을 마련코자 노심초사 하시며 불꽃처럼 타오르는 영원과 몸 바치신 정진력으로 총지종을 반석위에 올려놓으신 원정님과 장종 스승님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앞드려 참회합니다. 그

동안 지은 죄업 진정으로 참회합니다. 그리고 살펴봅니다. 총지 불제자로서 어긋난 행동하였는지, 때때로 은혜 잊고 살진 않았는지, 게으르고 방탕하며 가벼운 법으로 안주하며 편하려고 하지 않았는지, 계를 어긴적은 없는지 비추어 봅니다. 1983년 5월이었습니. 시집을 보면서 위대한 밀법의 전당 총지종 정각사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랜 특별한 신심이 없던터라 시부모님께서 가자하시면 가고 아무 말씀 없으시면 그냥 그렇게 있다가 가끔씩 절에 나가곤 하였습니다. 지금 생

각해보면 워낙 점잖으신 분들이라 표현이 없었지만 몸속 속이 타셨을 것 같아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시조모님께서는 신혼시절 2년간 저희와 함께 생활하시면서 자비심과 사랑과 복덕을 두루 주셨습니. 새벽이면 일어나셔서 세정하시고 단아하게 앉아 염주 돌리시던 모습. 조반 드시고 사시불공 열두시까지 하시고 오후엔 저를 부르셔서 '불교충전'을 읽어 달라 부탁도 하시고... 그 모습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그저 자는 잠에 가시기를 서원하시던 시조모님께서 저녁 죽반 그릇 드신 어느 날 밤 자는 잠에 96세를 일기로 열반에 드셨습니다. 그 후 저는 크게 깨달은 비가

어느 것 하나 소중하고 감사하지 않은 곳 없습니다. 너와 내가 따로 없고 하나이니 비로자나부처님 세상입니다. 지구촌 구석구석 아름다운 우주 부처님 법을 받을 수 없는 보배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뻐서 전합니다. 천구에게, 이웃에, 인연 닿는 모든 이에게 총지종을 알립니다. 친한 이들을 만나면 총지종 염원을 건네줍니다. 받은이는 서서히 모두 총지 밀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어느 것 하나 소중하고 감사하지 않은 곳 없습니다. 너와 내가 따로 없고 하나이니 비로자나부처님 세상입니다. 지구촌 구석구석 아름다운 우주 부처님 법을 받을 수 없는 보배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뻐서 전합니다. 천구에게, 이웃에, 인연 닿는 모든 이에게 총지종을 알립니다. 친한 이들을 만나면 총지종 염원을 건네줍니다. 받은이는 서서히 모두 총지 밀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어느 것 하나 소중하고 감사하지 않은 곳 없습니다. 너와 내가 따로 없고 하나이니 비로자나부처님 세상입니다. 지구촌 구석구석 아름다운 우주 부처님 법을 받을 수 없는 보배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뻐서 전합니다. 천구에게, 이웃에, 인연 닿는 모든 이에게 총지종을 알립니다. 친한 이들을 만나면 총지종 염원을 건네줍니다. 받은이는 서서히 모두 총지 밀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청정한 마음, 부처님 마음

가을의 산들바람이 불어오는 계절, 유난히도 무더웠던 지난 여름이 무색할 정도로 시원한 바람이 옷깃을 스치운다.

스치는 바람결을 따라 다정하게 들리는 따뜻한 음성, 마치 부처님의 음성처럼 아니! 진정한 수행자의 모습처럼 그동안 많은 친척과 이웃들을 부처님의 진리세계로 제도하여 중생구제의 이타성을 실천하고 있는 자석사 장경화보살을 찾아가본다.

항상 순수한 마음과 모습으로 얼굴에는 웃음을 가득 싣고 다니신다. 그러기에 소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 지지 않으나 생각한다.

청정한 마음을 가졌기에 얼굴에 비취지는 모습 또한 청정하리라. 일흔 중반을 넘은 연세지만 얼굴에는 예전의 아름다운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옛말에 40대 이상은 자신의 얼굴은 스스로가 책임져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얼굴 모습은 마음의 투영임을 실감할 수 있다.

가장 큰 공덕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순녀가 세명으로 아들을 출산하였으면 하는 소원을 가졌는데 이번에 며느리가 자연분만으로 출산을 하였는데 원하는 딸, 낳자, 시간에 순자를 출산하게 되어 다시 한번 말법의 오묘함을 실감하였다"고 한다.

부처님 진리세계와 법에 감복한 인연

장경화 보살이 처음 총지종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33년 전의 일이다. 그 당시 장경화보살은 법어사에서 많은 보살들을 불법으로 제도하는 등 불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대보살로 활동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날 친구가 찾아와서 총지종에 가던 소원이 성취된다고 하는 말을 하여 "도대체 어떤 곳인가?" 하는 궁금증도 있고 해서 자석사를 방문하게 되었다.

그 때 자석사는 조그마한 단독주택에 머리를 기른 전수님이 앉아 있었다.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라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 전수님께서 반갑게 맞아주면서 불공하는 법과 지금은 불교충전이 책으로 되어 있지만 그 때는 종이 조각으로 되어 있는 경전의 내용이 있었다. 그 당시 그 경전구절을 읽으며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 마음에 와 닿았다. 그래서 그 이후로 자석사에 입교하여 정진하게 되었다. 그 당시 친구들은 '남들은 다 절에 제도시켜 놓고, 자기 혼자 이상한 절에 다닌다.'고 불평도 하였다. 그러나 부처님의 법문과 불공하는 것이 너무 너무 좋아서 이 진리를 놓을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진리와 법이 너무 너무 좋았고, 가만히 불공하고 있으면 온 천하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은 황홀감을 느꼈으며 생활하면서 부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가 살아가는 지표가 되고 있음을 실감하면서 부처님의 법이 위대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

청정한 마음이 소원성취의 지름길

장경화 보살은 부처님의 공덕으로 1남 2녀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열심히 생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자님도 건강하여 소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한다. 이제는 원하는 것도 없다고 할 정도로 현실의 삶에 지족하며, 하루 하루 부처님께 불공하며 생활하고 있다.

장경화 보살의 모습을 볼 때면 청정한 모습 그대로이다. 마치 부처님의 따뜻한 음성처럼 좀처럼 남에게 싫은 소리, 화내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여려한 모습으로 생활하고 있다.

집안에서 나누는 부처님의 법

가족이 모두 불공을 하게 되면 불화가 없어지게 된다. 불공을 통해 미워하고, 시기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서로 서로 도와주는 이타심이 생기게 된다.

장경화 보살이 불공을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은 각자님의 헌신적인 도움 때문이라 한다. 각자님은 전생에 스님이었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불공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불공비도 항상 새돈으로 손수 챙겨주셨다

각자님의 도움으로 가족들은 자연스럽게 불공하는 습관이 생기게 되었고, 이제는 불공이 생활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모든 가족이 같은 신앙을 가지게 되었기에 집안에서도 부처님의 법을 이야기하고, 평상시에도 생활하면서 받았던 법문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부처님 법의 위대함을 느끼게 되었다.

"요즘 사람들은 바쁘게 생활하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보면 직장에 다니고, 자녀들을 키우며 너무 바쁜 생활을 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절에 나오지 못하는 것 같아요"

라며 이 좋은 법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생활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을 가진다.

불법제도는 남을 배려하는 청정한 마음

장경화 보살은 가족과 친인척뿐만 아니라 많은 이웃들을 제도하였다. 장경화 보살이 총지종에 입교하면서부터 일가, 친척들은 물론이며,



세상의 행복과 불행은 자신의 마음에 따라

이웃 사람들도 총지종에 입교하여 수행하고 있다.

장경화 보살이 많은 사람들을 제도할 수 있었던 것은 진언행자로서 수행하는 수행자의 모습을 지니고 생활하며, 자신의 신앙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저는 장경화보살님의 옆집에 살았는데 저를 비롯하여 남편께서는 장경화보살님의 언행과 인품을 존경하고 흠모하였어요, 그래서 보살님이 절에 다닌다 하여 따라 가게 되었는데 절에 가보니 불상도 없고, 조그마한 가정집이어서 처음에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만 보살님을 믿고 1주일간 같이 다니다가 웬지 마음속에서 절에 나가기가 싫어서 보살님께 절에 가지 않겠다고 하여 보살님과 만나지 않았지만 보살님께서서는 1주일간 저의 집을 방문하여 같이 가길 청하였어요, 저는 '그때 보살님을 믿고 다시한번 가보자' 하는 마음으로 절에 다니게 되었는데 수 십 년이 지난 지금은 보살님께 감사하는 마음뿐입니다."라며 이웃집에 살고 있는 보살은 지난 날을 회상하였다.

장경화 보살은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 앞선다고 한다. '부처님의 진리 안에서 생활하면 부처님께서 모든 것을 알아서 보살과 돌텐데..'

그동안 많은 사람을 제도하였지만 가장 기억에 남은 것은 '친구의 아들이 있었는데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는 착한 아이였어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정신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여 더 이상 공부를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유명하다는 절을 찾아다니며 불공하였지만 아들의 병세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나의 말을 믿고 총지종 사원에서 49일 불공을 잡아서 정성껏 불공하라 부탁하여 49일 동안 불공하게 되었는데 49일이 되는 마지막 날 갑자기 아들이 책방방을 챙기며 학교에 가겠다고 하여 그 후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고, 부산대학교를 졸업하여 현재는 가정을 꾸리며 잘 살고 있다.'고 한다.

모든 것은 내 마음안에

현시대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회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속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회에서 불자로서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도 다 내가 만들어낸 마음속의 망상 때문이지요. 나의 마음속에 남을 사랑하는 마음만 가득하면 남이 나에게 어떤 비방하는 말을 들을지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나쁜 말을 하면 기분이 상하게 되고, 남을 미워하게 되어요, 그러나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노의 마음을 없애 버리고 평상심의 마

음으로 생활하면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어요. 모든 것은 자신의 마음먹기에 달린 것이기 때문이지요."

세상사 모든 것은 한 생각, 한 마음에 따라 천당과 지옥이 갈라지게 된다고 한다.

장경화 보살과의 만남은 자비롭고 인자한 부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 이러한 모습을 가지게 된 것은 수 십 년 동안 닦아온 수행덕분이라 생각한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일지라도 편안하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면 모든 것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

살면서 가장 어렵고 힘든 시절이 언제인가?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어렵고 힘든 시절은 없었지만 가장 힘들었던 것은 젊은 시절 각자님께서 공부원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인사발령이 나서 승진은 하였는데 시골지역으로 배정이 되었어요. 각자님은 시골에서 생활하기 싫다고 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어요, 그때 생활하면서 많이 힘들었지만 '살마 못살까?' 하는 넓은 마음으로 어려움을 참으며 생활하다 보니 각자님께서 새로운 직장을 잡게 되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어요."라며 '힘들고 어려울수록 넓고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총지종의 교화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절을 찾을 수 있도록 유명한 영어선생을 초청하여 강의하는 영어교실, 놀이공간 등 어린새싹들을 키워야 한다."고 말한다.



진언행자 가족을 찾습니다
총지종 진언행자로 모범적인 수행을 하고 있는 진언행자 가족을 총지종보사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02)552-1080, 지정 정사



茶香의 향기를 찾아서 **다 향**
멀리서 나를 꽃이되게 하는 이여 향기로 나는 다가갈 뿐이다
목조각품, 침향, 녹차(우전,작설), 보이차, 오롱차, 고급자사호, 차도구, 생활도자기, 기타불교용품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76-24, 총지사 옆 전화 : 02-2052-5741, 010-7372-3090

